



7개국 137대 국산항공기 수출

(2016년 7월 누적 수출량)

KT-1, T-50의 인도네시아, 터키, 페루, 이라크, 필리핀, 태국, 세네갈 수출로 국내 항공산업의 수출산업화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제 미국 T-X 시장 진출과 KF-X의 성공적인 개발 및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수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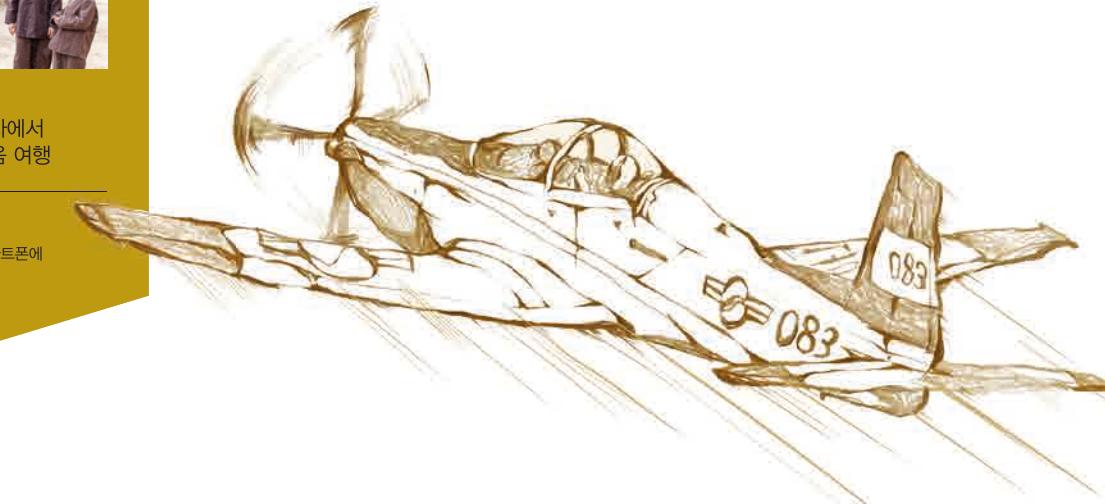
Fly Together

2017 JANUARY Vol.205 www.koreaaero.com

Monthly Issue
수리온 3차 및 상륙기동헬기
양산사업 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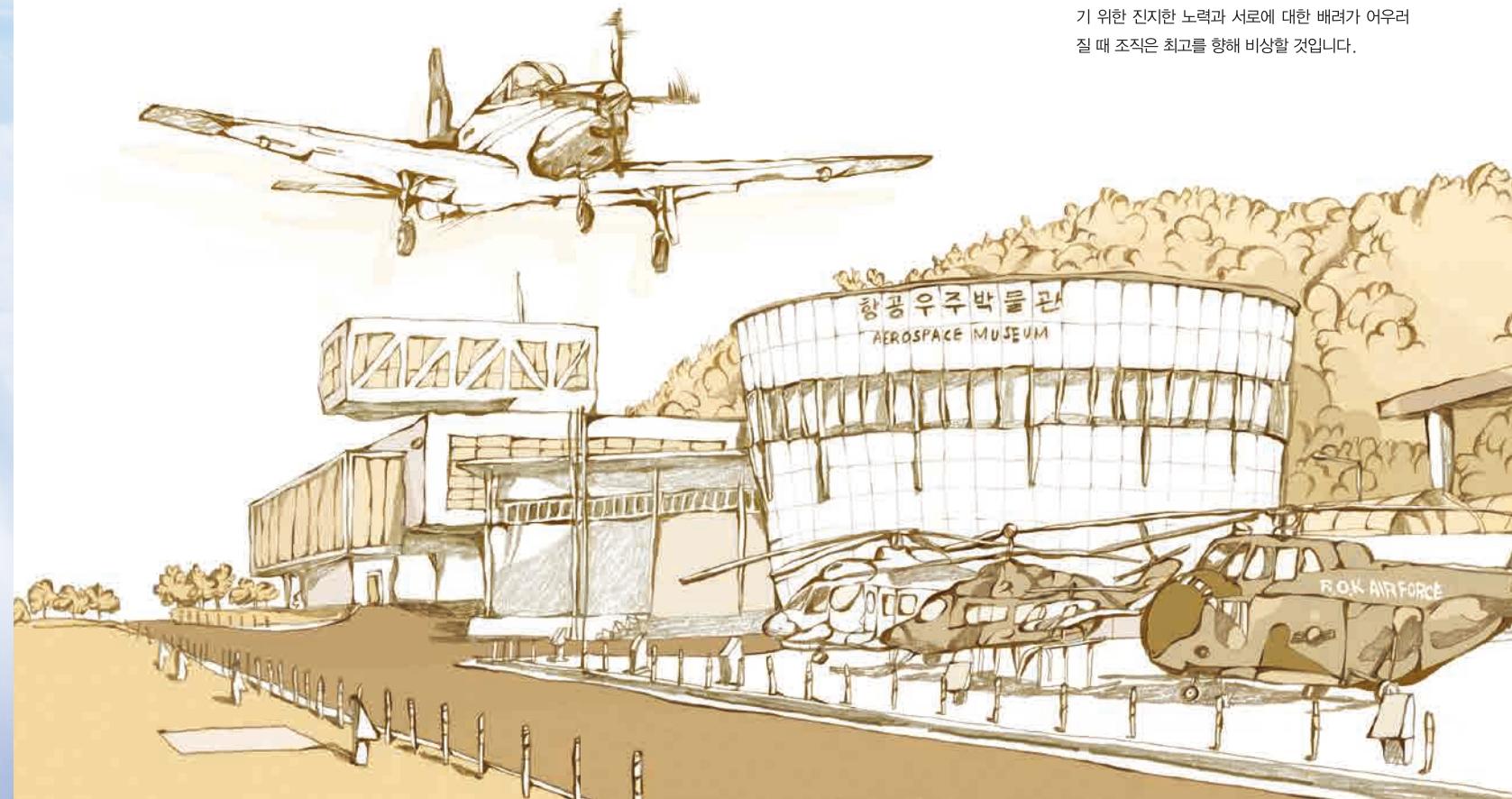
KAI 패밀리
눈 내리는 산사에서
세 부자의 마음 여행

kaiwebzine.com
반응형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PC나 스마트폰에
위의 주소를 넣으면 KAI 사보로 연결됩니다.



GWP Idea ① Respect

기업이 탁월한 성과를 빛는 전제 조건, 직원의 업무 만족도에서 시작됩니다. 각자의 업무 만족도를 찾기 위한 진지한 노력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어우러질 때 조직은 최고를 향해 비상할 것입니다.





KAI와 함께 열일곱 번째 새해 아침을 맞이합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늘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1월의 첫 번째 햇살은
더 찬란하고 설레게 느껴집니다.

2017년 <Fly Together>도
더 설레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새해 첫인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꾸며진 코너들도 많지만
특히 올해부터는 'KAI 히스토리'를 통해
KAI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KAI의 시작을 함께한
새 천년, 2000년의 기록 속으로 한걸음 들어가 봅니다.

그해 1월 사보 <KAI>가 창간되었고,
사천의 랜드마크가 된 항공우주박물관의 기공식이 7월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국산훈련기 KT-1 최초호기 출하도 그해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날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2017년 1월,
우리는 또다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큰 출기를 이어가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표지 작가 정대웅

Contents

www.koreaaero.com
JANUARY 2017 / Vol. 205



웹진 <Fly Together>
QR코드



하나 된 KAI

24



더 강한 KAI

04

04 Monthly Issue
수리온 3차 및 상륙기동헬기 양산사업 계약 체결

05 News Focus
항공업계 최초 '10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 외

10 CEO 신년 좌담회
협력과 협정을 다하여 올해를 도약의 기회로…

14 KAI 히스토리
새 천년과 함께 KAI 시대가 열렸다

18 역사 속 항공人
스텔스 기술의 요람 스컹크 웍스의 리더
켈리 존슨

20 Fly News
WTO, 美 보잉사 불법 보조금 판정 외

발행일 2017년 1월 11일(통권 205호 · 1월호 · 비매점)

발행인 하성용

발행처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기업문화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로 78

담당자 배화윤 차장, 구보람 과장

(055-851-1609)

제작대행 디자인신화(02-324-6852)

인쇄 삼화인쇄(02-850-0850)

정보간행물 등록번호 사천 라00004

이 책은 한국기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윤리위원회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Fly Together>에 실린
외부 필자의 원고는 KAI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은 KAI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복사 및 인터넷 공개를 제한하여 본 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누설을 금합니다.

CEO 신년 좌담회를 제외한 2017년 1월호에 소개된 사우
여러분의 부서와 직급은 2016년 12월 기준입니다.



소통하는 KAI

32

32 KAI 나눔봉사단
연말 맞아 이웃에 전하는 온정
김장에 팔 걷어붙인 나눔봉사단

34 KAI 패밀리
눈 내리는 산사에서 세 부자의 마음 여행

38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니
그것참, 좋다 KAI~

40 나의 여행 이야기
떠나요, 모든 걸 훌훌 버리고

44 세대공감 KAI
설레던 그 시절, 설날을 추억하며!

48 이야기 한마당
함께여서 행복하지 아니한가!

Monthly Issue



수리온 3차 및 상륙기동헬기 양산사업 계약 체결

우리 회사는 지난 12월 27일 방위사업청과 수리온(KUH-1) 3차 및 상륙기동헬기 양산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수리온 양산사업은 지난 2010년 12월 초도양산과 2013년 12월 2차 양산에 걸친 3번째 양산 계약으로 육군의 노후화된 기동헬기(500MD, UH-1H)를 수리온으로 대체한다.

상륙기동헬기 양산사업은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조·개발된 상륙기동헬기를 해병대로 납품한다. 해병대 입체고속상륙작전 등을 수행하고 창설 예정된 해병대 항공단에서 활용되며 성과기 반군수지원(PBL)사업을 통해 부대정비와 수리부속 및 정비, 후속 군수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News Focus

항공업계 최초 '10억 달러 수출의 탑' 수상

12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53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우리 회사가 '10억 달러 수출의 탑'을 받고 아울러 하성용 사장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00년도 설립 직후 900억 원에 불과한 수출이 지속적인 신시장 개척으로 국산 항공기와 항공기 기체구조물 수출 확대에 주력한 결과 2015년 매출의 62%인 1조8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성용 사장의 금탑산업훈장 수상은 항공산업의 수출신업화, 국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하성용 사장은 "이번 수상은 KAI가 명실상부한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발전하는 가능성 을 보여준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혁신적으로 최선을 다한 임직원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소형민수헬기 2차년 진도점검 진행

11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산업체핵심기술 R&D사업으로 수행되는 소형민수헬기(LCH)사업의 2차년도 진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담당간사, 외부검토위원, 방사청·한국형헬기개발단, 소형민수헬기 개발사무국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관기관인 우리 회사를 비롯해 5개 대학, 2개 연구소, 16개 업체 등 총 23개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여해 세부과제별 진도와 현황에 대한 점검을 수행했으며 종괄과제와 세부과제 3개 모두 2차년도 목표를 대체로 달성해 '계속'이란 평가를 받았다. 한편, LCH사업은 2015년 6월 착수하여 2021년 1월까지 총 68개월간 진행된다.



소형무장헬기 시제기 생산착수행사 개최

우리 회사는 11월 28일 소형무장헬기(LAH) 체계개발 시제기 생산착수행사를 열었다. 이로써 LAH 개발이 본격 생산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방위사업청·한국형헬기사업단장, 소요군 및 기술관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3항공체계개발실장, 국방기술품질원 사천센터장, 육군 항공담당관, 에어버스 헬리콥터스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LAH 체계개발사업은 2015년 6월 개발착수 이후 올해 8월 기본설계검토(PDR)를 완료했고 현재 상세설계를 진행 중이며 지난 10월부터 도면을 완성해 시제 1호기의 부품생산도 착수했다. 우리 회사는 2017년 6월 시제기 조립착수와 오는 2018년 9월 1호기 출고, 2019년 4월 초도비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군 요구를 충족하는 소형무장헬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해 적기 전력화 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한국형발사체 1단탱크 제작 사업착수회의 개최

12월 7일 한국형발사체 1단 추진체 탱크 사업착수회의가 항공기동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옥호남 발사체개발단장을 비롯해 우리 회사 신현대 생산본부장, 김명성 대전연구센터장 등 30여 명의 항우연과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운영, 제작계획 및 시제작 종합일정 등의 여러 현안을 협의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 회사는 산화제탱크와 연료탱크로 구성되는 1단 추진체 탱크 시제 2기를 제작하고, 이후 2019년 12월 예정된 한국형발사체 초도발사까지 개발 및 발사용 6기를 추가 제작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납품할 예정이다. 옥호남 발사체개발단장은 “일정 준수를 위해 KAI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신현대 생산본부장은 “국가 미래 항공우주산업발전을 위하여 KAI가 본격적인 우주산업 전문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형전투기 사업관리자회의 개최

12월 12일 2016년 후반기 한국형전투기(KF-X/IF-X) 사업관리자회의(PMR)를 실시했다. 사업관리자회의에서는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업무계획, 사업관리 및 체계개발 분야별 진행과 계획 등을 발표하고 주요 진척상황에 대한 현황점검과 이슈사항에 대한 조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논의했다. 국방부, 공군,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등 정부 관계자 60여 명을 비롯하여 KF-X/IF-X 국제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PTDI와 미국의 록히드마틴, 국내 협력업체가 참석해 KF-X 체계개발 및 사업관리분야 주요사항과 한-인니 공동개발 현황 및 주요장비 구매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016년 6월에 실시했던 전반기 KF-X 사업관리자회의에 한층 더 성장한 역량을 총집결하여 이번 후반기 KF-X 사업관리자회의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고위급 우주세미나 참석

12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우주세미나가 개최됐다. 포럼에는 한-불 양국의 정부, 산업체, 연구기관, 교육기관 고위급 인사와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 회사에서는 장성섭 부사장과 김명성 센터장, 한은수 상무, 이창한 팀장이 참석했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폐막 기념행사를 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는 우주정책, 산업정책과 미래 도전과제, 기후변화, 교육, 인력양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장성섭 부사장은 세미나에서 우리 회사의 우주개발사업 참여현황, 중장기비전 그리고 한국 우주사업 발전을 위한 제언과 함께 향후 프랑스와의 협력강화 의지를 전달했다.



KF-X 체계기능검토회의 개최

우리 회사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KF-X 체계기능검토회의(SFR)를 개발센터 대회의실 등에서 개최했다. 총 5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본 회의에는 국방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미국 록히드마틴, 인도네시아 PTDI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고 최종 점검된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 기본설계를 착수하게 됐다. KF-X 체계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우리 회사는 지난 1월 21일 착수회의부터 체계요구조건검토(SRR) 회의, 전반기 및 후반기 사업관리자회의와 더불어 이번 SFR 회의를 진행했다.



C-130H 성능개량 #1호기 납품 완료

12월 14일 우리 회사 2사업장에서 C-130H 성능개량 #1호기가 납품이 완료됐다. 이 사업은 각종 최첨단 임무 항전장비를 추가해 기존 항공기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2017년에는 #2호기는 지상·비행시험을 거쳐 납품하고, #3, #4호기는 2017년 입고돼 성능개량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6년 혁신활동 성과 보고회 개최

12월 15일 ‘2016 혁신활동 성과 보고회’가 열려 장성섭 부사장과 전사혁신과제 추진조직, 우수과제리더, 신임 MBB(Master Black Belt) 인증자가 참석했다. 보고회는 지난 1년간 과제별 주요성과와 우수과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다. 2016년 최우수 전사과제는 ‘개발혁신T/F’, 우수단위과제는 ‘비행계측팀 이태주 연구원’이 수상했다. 이어 우리 회사 최초의 여성 MBB로 헬기항전S/W팀 정숙향 선임과 함께 구교진, 박철규, 황성철 차장이 신임 MBB 인증서를 수여 받았다.



소형민수헬기 체계 상세설계검토회의(CDR) 진행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소형민수헬기(LCH) 상세설계검토회의(CDR)를 열고 시제기 제작을 위한 최종 설계검토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부전문가, 공동개발업체인 에어버스 헬리콥터스, 우리 회사 전문가 그룹이 검토위원으로 참여하고 방위사업청 한국형헬기개발단, 소형민수헬기 개발사무국 등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우리 회사와 에어버스 헬리콥터스는 이번 CDR 회의를 통해 시제기 제작 단계 진입을 확정하고 시제기 제작 및 비행시험, 인증 등 LCH 개발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상호 협력하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장성섭 부사장은 “혁신 추진조직 모두를 격려하고, 새해에도 지속적이고 도전적인 혁신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KAI 나눔봉사단

12월 사회공헌 활동

아동 대상 목욕봉사 활동

나눔봉사단 장학분과는 지난 12월 10일 사천지역 아동보호 공동생활체 까지동지그룹을 아동들을 초청하여 목욕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사천지역에는 까지동지와 호산나라는 2개의 그룹홈이 있고 각각 7명의 아이가 생활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려 목욕시키는 일이 어려운 상황에 나눔봉사단이 월 1회 정기적인 목욕봉사에 나선 것이다. 목욕봉사는 목욕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벗이 되어주는 동시에 멘토가 되어 아이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뜻깊은 봉사활동이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 위로잔치 진행

12월 17일 나눔봉사단 재능분과와 풍물동아리 민예는 협동으로 성남두레복지원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위로잔치를 열었다. 다양한 공연을 통해 연말연시 외로울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를 선물하고 함께 사랑을 나눈 봉사활동이었다. 또한 25일에는 사랑의 몰래산타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천지역 시민들과 함께 산타 복장을 하고 지역의 어려운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 선물도 전달하고, 즐거운 파티도 열어주며 행복한 시간을 선사했다.



이웃사랑성금 기증식 및 초청행사

12월 26일 개발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웃사랑성금 기증식과 지역 어르신 및 모범학생 80명을 위한 초청잔치가 열렸다. 이웃사랑성금 기증식을 위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사천시 행정국장, 항공협력업체 대표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기증식을 축하해주었다.

우리 회사는 이번 기증식을 통해 사천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6억 원의 성금을 기증했고, 항공협력업체는 5,400만 원의 성금을 기증하였다. 이번에 기증된 이웃사랑성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 250여 가정에 정기적으로 후원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0

CEO 신년 좌담회
협력과 열정을 다하여
올해를 도약의 기회로…



14

KAI 히스토리
새 천년과 함께 KAI 시대가
열렸다



18

역사 속 항공인
스텔스 기술의 요람
스컹크 웍스의 리더
켈리 존슨



20

Fly News
WTO, 美 보잉사 불법
보조금 판정 외

Section 1 더 강한 KAI

찬란한 역사가 있기에

내일의 태양이 더 밝게 떠오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KAI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협력과 열정을 다하여 올해를 도약의 기회로...

정유년이 밝아왔다. 새해 첫 출근날인 지난 1월 2일, 하성용 사장과 사보기자단 4명, 카이캐스터 4명이 함께 모여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의 목표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하성용 사장은 2017년도 목표를 제시하고 소통과 협력하는 조직문화에 대해 강조했다.

기획 배화운 차장 정리 편집실 사진 정우철



하성용 사장 어제는 모두 좋은 꿈 꾸셨나요?
2016년은 힘든 일도 많았지만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가 힘을 합쳐 이뤄낸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모처럼 좋은 시간이 마련되었으니 여러분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종원 과장 2016년에 많은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보람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었을 듯합니다.

하성용 사장 2016년은 많은 일이 일어난 해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경영활동 전반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수리온 3차 후속 양산이 이뤄졌고, 해병대에 상륙기동헬기를 처음 납품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미 육군에서는 노후화된 헬기를 수리온으로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와중에 들리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KT-101 세네갈에 수출된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에 이어 세네갈 시장 개척을 통해 아프리카 시장의 활로가 뚫렸습니다. APT 사업을 위해 개량된 T-50A 개발을 비롯해 KF-X 체계 기능 검토, LCH 구성품 개발, LAH 시제 1호 기 생산 착수 등 많은 일이 지난해에 이루어졌습니다. KAI가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될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T-50 항공기 무사고 비행 시험 5,000회



를 달성한 일도 지난해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차세대 사업인 MRO사업 결정이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미래 성장 사업이라 아쉬움이 큽니다. 현재 원제기 수출은 여러 나라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국 국왕의 서거로 태국에서 승인이 미뤄졌고, 국왕이 바뀌면서 프로세스도 크게 변했습니다. 페루 역시 대통령과 집권당이 바뀌어 인수 인계를 하는 상황이라 원제기 수주가 늦어졌습니다. 수출국의 정치 상황과 예산 문제로 인해 수주 목표 달성을 차질이 있는 것도 아쉽습니다. 다행히 실주가 아니어서 올해 재도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불안정한 대외 환경과 국제 경쟁 심화는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임직원 모두의 굳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최지웅 기술원 현재 직원들이 APT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장님의 생각하는 APT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말씀 부탁합니다.

하성용 사장 우리 모두의 관심사 중 하나가 APT 사업입니다. 현재는 가능성, 자신감에 관한 이야기보다 얼마나 철저하게 APT사업을 준비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흔히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벗어나 '우리는 반드시 수주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임직원 전체가 한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나가야 합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이 APT사업입니다.

장근형 선임 KAI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장기 경영방향이 궁금합니다.

하성용 사장 2017년은 비전달성을 위한 중간 점검 시점으로, 2020년까지 실행목표로 전환하여 전략을 구체화하고, 2030년까지 비전을 확대 추진해야 합니다. MRO사업은 초기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설비 구축, 인력

보강, 투자 등 다양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중국 MRO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리부품의 면세 등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민항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시장은 정부의 지원과 상관없이 경쟁력 하나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현재 해외 시장은 한국 상품에 대한 품질과 성능을 높게 인정합니다. 페루의 경우 KT-1에 대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울 정도로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기에 더욱 품질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민수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KAI가 잘하는 시장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2030년쯤에는 독자적인 민항기 모델을 선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회사는 2013년 이후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연평균 20% 수준의 지속 성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매출의 추이를 보면 2030년에는 매출 20조를 달성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세계 6대 항공우주업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만 킬로에 달하는 국제화물운송열차 노선들이 개통되어 바로 이동하면 한 달이 걸리는 물류 이동이 15일이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동하는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 자본 등 다양한 이유로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에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를 이점으로 보잉과 에어버스 등에 다양한 사업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10% 이상 성장하도록 방향을 세웠습니다. APT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연내 계약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T-50, KT-1의 원제기 수주를 확대하며, 민항기의 부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 신사업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노나영 선임 수리온 체계결빙시험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수리온 개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성용 사장 처음 수리온을 개발할 때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국산화율이 높은 헬기를 개발한다'를 표방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의욕이 넘쳤고 무엇이든 이를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어떻게 헬기를 6년 만에 적은 비용으로 생산하면서 국산화를 65% 이상 이를 수

정종원 과장 왜 민수 사업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러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실크로드와 관련된 영상을 보았습니다. 실크로드에 왕복 8차선 대로가 건설되었다는군요.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을 통해 엄청난 물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 충칭에서 독일의 함부르크까지

하성용 사장 지금 세계 시장에서 떠오르는 나라는 동남아시아입니다. 라오스, 미얀마 등이 두드

참여소감 사내 기자단



“2017년 APT사업과 추진과제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직원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KAI의 발전을 위해 사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KAI의 성장에 있어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기회가 지금이라는 말씀이 기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보다는 회사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하시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며 열정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있느냐며 무모하다고 말했습니다. 목표한 대로 수리온을 개발하자 그들은 우리를 경이롭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개발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어떤 나라도 한 번에 100% 완벽한 제품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발전하며 성장해 지금의 모습을 갖춘 것이 바로 수리온입니다.

김현우 주임기술원 카이캐스터로 활동하면서 기업문화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APT사업 같은 대형 사업을 앞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문화는 무엇일까요? 또는 사장님이 이루고 싶은 조직문화는 무엇인지요?

하성용 사장 조직문화는 조직과 구성원 관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항공 산업의 환경은 척박했습니다. 당시 항공 3사가 벌인 산업을 정부가 통합해 만든 것이 KAI입니다. 그러나 보니 조직문화에 비중을 두지 못했지요. 세 개의 회사가 합쳐졌기에 조직 간의 융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KAI 사장으로 부임하면서 조직문화를 일류로 만들어야 KAI도 일류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벽과 벽을 허물고 본부와 본부가 협력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마인드도 중요합니다. 구성원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조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면서 소통하는 기업문화가 정착해 나가길 바랍니다. 작은 나사 하나 때문에 완성품에 결함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KAI의 구성원 모두가 귀한 조각입니다. 이 조각들이 합쳐져 KAI를 만드는 것 이지요. 이를 위해 바른 조직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KAI가 세계적인 항공업체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장재완 부장 앞으로 우리의 성장 과제와 목표 외에 사장님의 개인적인 소망도 궁금합니다.

기회이자 희망의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APT사업, KF-X사업 등 중요한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APT사업은 반드시 해내고 싶습니다. 수주를 넘어 이윤을 내는 사업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리 회사를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낸다면, 2030년 우리는 일류 기업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위기를 희망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참여소감 카이캐스터



“회사의 경영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인 경영 철학과 일류 기업을 위해 조직문화 정착까지 고민하는 사장님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경영철학과 조직문화에 대해 사장님과 대화를 통해 알아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카이캐스터 활동을 통해 신바람이 나는 조직문화와 소통의 매개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회사의 미래를 위한 사장님의 고민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카이캐스터로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알지 못하던 회사의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직원과 회사가 소통하는 창구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온 지구가 들썩이던 때. 새 천년을 맞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 세계는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다.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KAI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1999년 출범 이후 KAI라는 이름으로 맞이하는 새 천년은 지구촌 그 누구보다 더 설레고 희망의 메시지였다.

기획 배화운 차장 글 김희정

새 천년과 함께 KAI 시대가 열렸다

KAI의 시작

1998년 9월 3일은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 및 삼성항공 3사가 양해각서를 쓰고 통합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한 공식적인 날이다. 그리고 약 18일 후 통합회사 출범을 위한 최초의 통합 사무국이 전경련 빌딩에 마련되었다. 통합 사무국은 3명의 직원으로 출발하였다.

통합 사무국은 지금으로써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486 컴퓨터 한 대가 있었고, 프린터가 있긴 했지만 문서 출력을 한번 보내면 30분씩 기다려야 할 정도로 업무환경이 열악했다. 초반 두어 달 동안은 개인 책상 없이 회의용 테이블에서 일했던 적도 있었다. 그렇게 자리를 잡

으며 그해 연말 인원은 64명으로 늘어났다.

전경련 사무실에서 있었던 약 8개월은 KAI 설립을 위해 박차를 가했던 시간이었다. 새로운 창업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준비의 시간을 지나 1999년 10월 1일 KAI가 정식으로 출범했고 얼마후 새 천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했다.

새 천년의 꿈을 담은 KAI의 얼굴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이름은 사실 1998년 10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생겨났다. 산업이 '항공우주'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기 때

연재 순서

- ① 2000년 _ KAI, 새롭게 비상하다
- ② 2001년 _ 세계를 향한 희망의 발견
- ③ 2002년 _ 자부심의 기와 그리고 희망
- ④ 2003년~2004년 _ 국산 고등훈련기 개발의 태동
- ⑤ 2005년~2006년 _ 대한민국 공군력에 날개를 달다
- ⑥ 2007년~2009년 _ KAI, 세계를 호령하다
- ⑦ 2010년 _ 수리온,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다
- ⑧ 2011년 _ 도약의 시기, 더 높이 나는 KAI
- ⑨ 2012년 _ 항공우주 산업을 이끈다
- ⑩ 2013년 _ 수리온 시대의 깨막
- ⑪ 2014년 _ 새로운 기회, 폐루를 만나다
- ⑫ 2015년~2016년 _ 희망의 결실, 또 다른 시작



문에 '한국'을 넣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불리다가 결국 회사명이 되었다. 영문 이니셜을 따 'KAI'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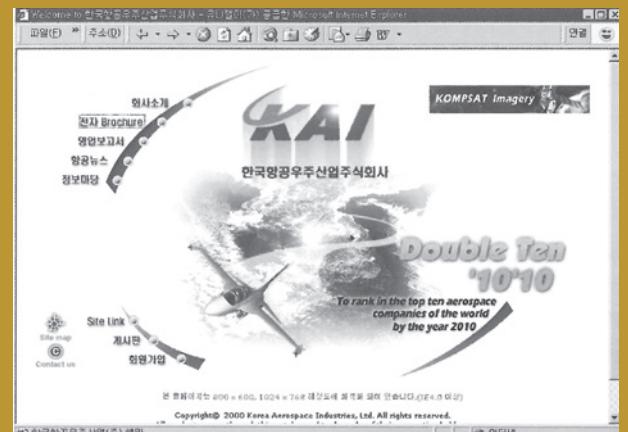
KAI의 워드마크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워드마크 KAI는 미래를 개척하는 최첨단 항공업체로의 힘찬 비상을 이미지화했다. 새 천년 밀레니엄 시대의 국제화, 세계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포인트다. 영문 이니셜 K의 윗부분은 우주를 상징한다. 세계 속의 KAI, 세계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연결하게 하는 KAI, 범우주적 세계 일류기업으로서의 KAI를 나타내기도 한다.

볼드한 느낌은 안전제일주의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기업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인정된 회사, 건실한 회사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KAI를 이탈리으로 표현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속도감과 방향성을 부여하였다. 색

상은 청정하고 맑은 하늘색 꿈과 이상을 담은 스카이블루와 최첨단 산업의 미래지향적인 특성을 나타낸 코발트블루를 사용하였다. 새 천년의 꿈을 안고 세상에 선보였던 KAI의 워드마크는 16년 만인 지난해 2016년 새롭게 변화했다. 새로운 CI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대도약 의지와 비전'을 담아냈고, 임직원 의견을 반영해 기존 '주춧돌', '하나 됨'을 의미하는 도형을 추가한 것이다. KAI는 CI 변경을 통해 KAI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를 상기하며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기업문화의 정착

서로 다른 회사가 모였으니, 문화가 다른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KAI라는 이름으로 한곳에 모인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융합이 시급했다. 서로 다른 기업문화를 가진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가



T-50 정식명칭 결정

당시 개발 중인 한국형 고등훈련기의 정식명칭이 T-50으로 결정되었다. 별칭인 '골든 이글'도 이때 결정된 것. '골든 이글'은 공군이 주관해 실시한 국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1월 사보〈KAI〉창간
KAI 출범과 함께 사보 〈KAI〉가 창간되었다. 당시 소통의 기업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두드러지던 때였고, 팀워크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기업문화의 한 축으로 사보가 그 역할을 해냈다.

2월 KF-16 최종 시험비행 성공
2000년 3월 14일, KF-16 항공기의 최종 시험비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1995년 4월, 첫 시험비행 이후 5년에 걸친 552번의 시험비행을 소화한 후 최종 시험비행에 성공한 것.

KF-16 최종호기 인도식

2000년 4월 19일, 경남 사천공장에서 KF-16 차 공급분 최종호기(120호기) 인도식이 열렸다. 당시 이억수 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하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차관, 행동양식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했다. 그 어떤 회사보다 기업문화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던 때였다.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2000년 2월호 사보에 등장하는 이현숙 사우(당시 본사 인사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시 사내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현숙 사우는 KAI라는 이름으로 채용된 첫 여성 사원이었다.

“처음 세 분과 일을 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명씩 식구들이 늘어났죠. 그때는 소개를 안 해도 하루만 그분을 지켜보면 ‘아, 어디서 오신 분이구나’하고 알 수 있었어요. 그런 각 사의 특성들이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해요. 그래야 진정한 KAI의 기업문화가 생겨나고 팀워크도 생겨날 테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2000년에는 특히 팀워크가 강조되던 때였다. 팀워크를 위해 사업장 간의 경영정보 및 주요 이슈사항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채널 구축이 시급했고, 기존 출신 회사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을 접고 KAI인으로서의 현실을 직시하고 회사의 이익과 융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팀워크 형성의 기본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때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보 창간은 시의적절하였으며, 필연적이었다. 사보가 팀워크를 극대화하고 KAI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낼 소통 창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2000년 1월, 새 천년의 시작과 함께 사보 〈KAI〉가 창간되었다.



KF-16 최종호기 인도식

KAI라는 이름으로 맺은 결실은 더욱 뜻깊었다. 치열하게 일하며 성과를 얻어가는 과정에서 팀워크와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때문에 KAI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의 의미는 매우 커졌다. 그런 의미에서 KF-16 최종호기 인도식은 2000년 KAI의 주요 업적 중 하나였다. 2000년 4월 16일, KAI 사천1공장에서 한국형 전투기 KF-16 1차 공급분 최종호기(120호기) 인도식이 열렸다. 지난 1992년부터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증강을 위해 추진되었던 한국형 전투기사업(KFP)이 8년 만에 1차 사업을 마무리한 것이었다. 한국형 전투기사업은 당시까지 국내 항공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총 50억 달러(5천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었다. KFP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 당시 초보 수준인 면허조립 단계에 머물렀던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 수준이 기술도입, 조립생산단계

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

국산훈련기 KT-1 최초호기 출하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항공기인 KT-1 기본훈련기 1호기 출행사가 2000년 11월 3일 사천1공장에서 진행되었다. 공군이 주관하고 KAI가 협찬한 행사로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행사였다.

이날은 우리 공군의 숙원이었던 공군 훈련기의 국산화 노력이 마침내 성공을 거둔 뜻깊은 날이었으며, KT-1 개발에 힘쓴 지난 12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날이기도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무엇보다 오늘 KT-1호기의 탄생이 뜻깊은 것은 연구와 개발, 설계와 제작의 모든 과정을 순수 자체기술로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과학기술의 잠재력과 개발 인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라며 격려했다.

KT-1 개발은 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 KAI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KAI는 상세설계와 제작을 담당하며 KT-1의 주 생산업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며 KAI가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의 종주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2000년 1호기 출하 이후 KT-1은 2001년 인도네시아 공군과의 계약을 통해 수출을 이뤄내며 대한민국 항공기 수출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고 이어 터키, 폐루 등으로 수출되며 대한민국 항공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본 칼럼에 소개된 내용은 2000년 사보 〈KAI〉의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스텔스 기술의 요람 스컹크 워스의 리더 켈리 존슨¹⁾

(1910. 2. 27~1990. 12. 21)

눈부신 발전을 이룩해온 오늘의 항공우주 기술을 이루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피와땀이 있었지만 몇몇 위대한 항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성과인지도 모릅니다. 본 지면에서는 항공역사에서 큰 발자취를 남기며 오늘의 항공우주 기술을 존재하게 했던 인물들을 가상 인터뷰 형식으로 만나봅니다.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소개될 예정이며 사우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글 조문근 항공전문기자



Q. 역사 속 항공인의 첫 주인공으로 켈리 존슨씨를 모셨습니다. KAI 사우들에게 간단히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1933년 록히드(현 록히드마틴의 전신)에 공구 엔지니어로 입사한 이후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에 록히드 사내 특수연구개발조직인 스컹크 워스(Skunk Works)를 창설해 1975년까지 팀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스텔스 기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죠. 록히드에서 일하는 동안 40대가 넘는 항공기 설계를 맡았어요. 대표

이를 바탕으로 개발 측면에서는 저의 신조를 지켜나갔습니다. 저의 신조는 '신속히, 조용히, 그리고 계획대로'였죠. 원칙을 지키고 개발에 집중하며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어쩌면 성과는 자연스레 따라온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후

임 스컹크 워스 책임자였던 벤 리치(Gen Rich)에게 조언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비행기 덕을 볼 생각 말게. 자네 자신의 비행기를 만

들어.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비행기를 만들면 안 돼. 자네와 스컹크 워스의 평판에 오점을 남겨서도 안 된다고. 그저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따라 일을 성실히 추진하면 돼."

제 조언을 잘 따라준 벤 리치와 그가 이끌던 스컹크 워스는 세계 최초의 실용 스텔스기 F-117 개발에 성공하면서 스컹크 워스의 명성을 이어갔으나 저의 신조가 타사들과는 구별될만한 성과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Q. 너무 많은 위대한 항공기들을 설계하셨기 때문에 한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한 가지만 꼽으신다면?

A. 1960년 5월 1일 U-2가 소련 상공에서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었던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U-2의 개발 시기는 소련의 핵전쟁 위협이 최고조로 치닫던 195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소련이

가진 정확한 공업 능력과 전략자산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협은 더 컸죠. 그 때문에 그들의 방공능력을 벗어난 영역을 비행해 그들의 실제적인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U-2는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개발을 지시

A. 사람들은 저를 '천재 엔지니어'로 부르지만 사실 저는 그보다 '조직 전문가'로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스컹크 워스를 이끄는 리더로서 하

나같이 독창적인 생각들로 뚫고 뚫친 엔지니어들과 기계공들을 이끄는 일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에 대한 평가는 '고집불통', 혹은 '다혈질'이 대부분이었고, '간식으로 젊고 부드러운 엔지니어를 잡아먹는 도깨비'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혹평들을 성실성으로 극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 측면에서는 저의 신조를 지켜나갔습니다. 저의 신조는 '신속히, 조용히, 그리고 계획대로'였죠. 원칙을 지키고 개발에 집중하며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어쩌면 성과는 자연스레 따라온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후

임 스컹크 워스 책임자였던 벤 리치(Gen Rich)에게 조언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비행

기 덕을 볼 생각 말게. 자네 자신의 비행기를 만 들어.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비행기를 만들면 안 돼. 자네와 스컹크 워스의 평판에 오점을 남겨서도 안 된다고. 그저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따라 일을 성실히 추진하면 돼."

제 조언을 잘 따라준 벤 리치와 그가 이끌던 스컹크 워스는 세계 최초의 실용 스텔스기 F-117 개발에 성공하면서 스컹크 워스의 명성을 이어갔으나 저의 신조가 타사들과는 구별될만한 성과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Q. 사실 스컹크 워스의 성공으로 다른 회사들도 그와 유사한 사내 특수연구개발조직을 많이 설립했지만 존슨 씨가 이끌던 스컹크 워스 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요인이었을까요?

A. 생각해 보세요. SR-71 개발에 착수한 게 1950년대 후반입니다. 제트엔진이 등장한 지 채 10년 남짓인 시기에 27,500m 상공을 총알보다도 빠르게 나는 항공기를 만들어 내겠다고 도전했던

하고 개발상황을 직접 챙길 만큼 대단히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전례 없는 항속거리(8,000km)와 작전고도(22,700m), 그리고 비행시간(10시간)을 발휘하는 U-2를 개발하기 위해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U-2가 최초의 소련 상공 비행을 감행했던 1956년 7월 4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첫 소련 상공 비행에서 우리의 모든 개발역량을 투입했음에도 10여 대의 소련 요격기가 출격했고 비행 내내 소련의 레이더 추적을 받았기 때문에 불안했어요. 게다가 다음 해인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간 스포트니크를 우리보다 먼저 궤도에 안착시킨 것을 보고 그들의 미사일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음이 명백해졌지요. 이후 저는 U-2에 올라 직접 시험비행을 하면서 U-2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2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소련의 미사일 기술 발달 속도에 쫓기는 일이었어요. 결국 새로운 아이디어, 즉 새로운 개념의 정찰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아닌 속도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를 가능케 할 기종(SR-71)에 대해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철탑에 일이 터진 거죠. U-2는 미국의 정책수립자들로 하여금 소련의 전략 능력을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며 비행 정보 면에서 20세기 최대의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U-2 격추사건으로 미국은 한동안 매우 곤란한 처지가 되었지요. 물론 이는 저와 스컹크 워스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는 마하 3급 SR-71 개발의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Q. 존슨 씨가 설계한 항공기 중 SR-71을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A. 생각해 보세요. SR-71 개발에 착수한 게 1950년대 후반입니다. 제트엔진이 등장한 지 채 10년 남짓인 시기에 27,500m 상공을 총알보다도 빠르게 나는 항공기를 만들어 내겠다고 도전했던



켈리 존슨이 개발한 U-2. U-2는 켈리 존슨이 개발한 항공기 중 오늘날까지 현역으로 활동 중인 유일한 항공기다.

것이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마하 3으로 나는 비행기 기수의 온도는 480°C, 공기흡입구는 650°C 까지 올라갑니다. 항공기 제작의 표준소재인 알루미늄은 150°C만 되도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격추되거나 사고로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했죠.

Q. 끝으로 엔지니어를 꿈꾸는 사람들과 KAI 사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합니다.

A. 저는 록히드에 공구 엔지니어로 취직하며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비행안정성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여객기 모델 10 엘렉트라 여객기에 변경안을 설계팀에 제안했고 제 제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된 것을 계기로 기술 엔지니어로 자리옮기게 됐죠. 저의 직무와 연관성이 없었지만 우리 회사의 일이었고 문제의식을 갖는 태도로 접근한 것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엔지니어로서 평가받게 될 수 있었던 단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매사에 애사심과 적극성 그리고 도전 정신을 가진다면 언젠가는 큰 결실을 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전 기간에 여러 대가 격추됐던 U-2와 달리 SR-71은 1990년 퇴역하기 전까지 24년간 소련, 베트남, 북한 등 가장 위협적인 공산 국가들의 상공을 3,500여 회, 무려 1억km를 비행하며 100

1) 켈리 존슨의 본명은 Clarence Leonard Johnson이며 흔히 불리는 켈리(Kelly)는 별칭이다.

Fly News

글 국방기술품질원 임상민 연구원



①

WTO, 美 보잉사 불법 보조금 판정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1월 28일(현지시각) 미국 보잉사에 주 정부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판정했다. WTO를 '재양'이라고 부르며 대선 기간에 털퇴까지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미국과 관련해 처음 나온 보조금 판정이다. 이 때문에 향후 트럼프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WTO 패널은 이날 "보잉 신형 항공기 모델인 777X를 대상으로 한 워싱턴주의 법인세 감면 프로그램이 국내 원자재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법 보조금에 해당 한다"며 유럽연합(EU)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90일 이내에 보조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집행위원은 WTO 결정이 나온 뒤 "미국이 규정을 준수해 공정한 경쟁을 준수하고 즉각 보조금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잉사 측은 "미국 정부가 WTO에 항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유경제 '하늘의 우버' 인기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예약하듯이 개인 전세기를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공유경제 서비스 우버를 보고 헌트를 얻는 사업자들이 이를 개인 전세기 객기 A380의 실적 악화 때문이다. 지난 11월 2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유럽지역 13만 6,000명 직원 중에 1,164명을 감원한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프랑스 640명, 독일 429명 등이다. 에어버스의 인위적인 감원은 처음이다. 그간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직원을 줄여왔다.

에어버스그룹의 톰 엔더스 최고경영자(CEO)는 "(인력 감원은) 회사의 장기 전략적인 차원에서 타당하고 필수적인 수순"이라고 했다. 최대 규모의 감원은 수익 하락으로 인한 긴축 경영에 따른 것이다. 에어버스의 지난 3·4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500인승 초대형여객기 A380의 판매 부진의 영향이 컸다. 에어버스는 2018년부터 A380 생산 목표를 전년 생산 물량(27대)의 절반도 안 되는 12대로 낮춘 바 있다. 고가의 초대형 기종보다 연비가 좋은 중형기로 대체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에어버스 초대형 항공기 A380 실적 부진

유럽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가 최대 규모의 감원을 단행한다. 에어버스가 자랑하는 초대형 여객기 A380의 실적 악화 때문이다. 지난 11월 2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유럽지역 13만 6,000명 직원 중에 1,164명을 감원한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프랑스 640명, 독일 429명 등이다. 에어버스의 인위적인 감원은 처음이다. 그간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직원을 줄여왔다.

에어버스그룹의 톰 엔더스 최고경영자(CEO)는 "(인력 감원은) 회사의 장기 전략적인 차원에서 타당하고 필수적인 수순"이라고 했다. 최대 규모의 감원은 수익 하락으로 인한 긴축 경영에 따른 것이다. 에어버스의 지난 3·4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500인승 초대형여객기 A380의 판매 부진의 영향이 컸다. 에어버스는 2018년부터 A380 생산 목표를 전년 생산 물량(27대)의 절반도 안 되는 12대로 낮춘 바 있다. 고가의 초대형 기종보다 연비가 좋은 중형기로 대체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Fly News



④

미 해군, 꼬리로 이착륙하는 고성능 군사용 드론 개발

미국 해군이 꼬리로 이착륙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 무인비행기를 함정에 탑재할 전망이다. 미국 노스롭그루먼은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및 해군과 공동으로 수행 중인 텐(TERN·Tactically Exploited Reconnaissance Node) 프로젝트가 두 가지 주요 성능 시험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텐은 꼬리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이다. 노스롭그루먼은 2018년에 실제 비행 가능한 기체를 선보일 계획이다.

텐은 수직으로 이착륙하기 때문에 활주로가 필요 없고, 기체 방향을 직각으로 세운 채 이착륙하여 일반적인 수직 이착륙기와도 다르다. 이 때문에 함정에서 차지하는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텐은 일반적인 감시, 정찰 임무는 물론 무장까지 탑재하여 공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다. 무장 탑재는 총 454kg, 최대 항속거리는 1,111km에 이른다. 텐이 전장에 투입되면 미국 해군은 소형 함정까지 장거리 감시, 정찰,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획기적인 전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⑤

중국판 글로벌호크 곧 실전배치

중국이 10여 년에 걸쳐 개발해 온 무인정찰기가 곧 중국 공군에 인도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지난 12월 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나는 용'이라는 뜻의 상룡(翔龍)으로 명명된 이 무인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구이저우 항공공업그룹이 개발해 왔다. 그러나 2011년 에어쇼에서 프로토타입이 공개된 이후 개발 관련 내용이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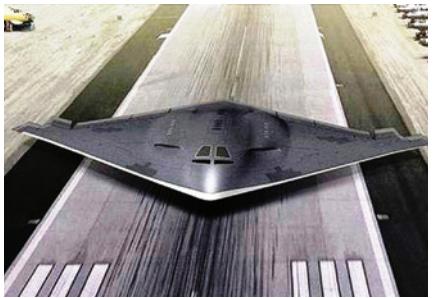
2013년 1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상룡은 최근 막바지 시험비행을 진행 중이고 조만간 중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길이 14m, 날개폭 24m인 상룡은 현존 최고의 무인정찰기인 미군의 글로벌호크와 외형이 유사하고 성능도 이에 버금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체적인 성능은 최대 시속 750km, 최대 상승한도 1만 8,000m에 최대 항속거리가 7,000km에 달하며, 최장 10시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⑥

록히드마틴 · 보잉, 인도로 생산시설 전면이전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자리 해외 유출을 막겠다며 "미국을 떠난 기업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롱히드마틴과 보잉 등 대형 방산업체 두 곳이 생산시설의 전면적인 인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2월 5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롱히드마틴은 텍사스에 위치한 F-16 생산 라인 전체를 인도로 옮겨 단일 생산지로 통일하는 것을 인도 정부에 제안했다. 보잉은 인도에서의 F/A-18 전투기의 공동 생산을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후 두 기업의 인도행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시아와 멕시코 등으로 일자리가 유출되는 것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일자리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롱히드마틴과 보잉 측은 "생산시설을 이전한다고 미국에 일자리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Fly News



⑦

중국, 핵탑재 가능 스텔스 전략폭격기 흥–20 개발 중

중국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스텔스 장거리 전략폭격기 흥(轟)-20을 개발하고 있다고 홍콩 동망(東網)이 지난 12월 4일 보도했다.

사이트에 따르면 마사오텐(馬曉天) 공군 사령원이 앞서 흥-20을 연구한다고 밝힌 데 이어 중국 공군 전문가가 이를 확인했다. 공군 장비연구원 군사전문가 장원창(張文昌)은 최근 관영 매체와 인터뷰에서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 흥-20이 고도의 스텔스성 외에도 대륙을 횡단 비행하는 것은 물론 핵과 재래식 무기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원창은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육해공 삼위一体의 전략 핵전력을 완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흥-20을 조만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또한 장원창은 중국이 공격과 방어능력을 겸비한 전략형 공군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무기체계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장비에는 최첨단 전투기, 장거리 폭격기, 대형 수송기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란, 러시아제 Su-30 전투기 대량 도입 임박

이란이 러시아제 Su-30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란 호세인 데흐칸 국방장관이 지난 11월 26일(현지시각) 밝혔다.

반관영 타스nim 통신에 따르면 데흐칸 국방장관은 이날 “러시아제 군용기 구입에는 반드시 기술 이전을 받는 조건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러시아 측이 Su-30 수출 이외에도 합작투자와 기술 이전에 관한 이란의 협상 조건을 모두 수락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월 23일 이란군 제2인자 아흐마드 레자 푸르다스탄 준장은 이란이 방공 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전투기를 추가로 사들일 계획이라고 언명했다. 당시 푸르다스탄 준장은 어떤 국가에서 어떤 기종의 전투기를 도입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역대 최대 적으로 간주하는 이란은 최근 예멘 시아파 후티 반군과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간접적으로 싸우고 있다. 러시아 Su-30기는 미국 F-15E 전폭기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러시아 Su-35 모방 J-11D 전투기 곧 배치

중국이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인 수호이(Su)-35를 모방한 전(殲) J-11D를 조만간 배치할 것이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지난 12월 12일 보도했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해당 전투기 엔진을 예정대로 받지 못하자 자체적으로 WS-10 터보팬 엔진을 개발해 J-11D에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SCMP는 중국이 러시아와 10년 협상을 거쳐 지난해 Su-35기 24대를 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J-20 등 신형 전투기에 사용할 Su-35기 117S 터보팬 엔진 48개를 확보하기 원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자 WS-10 엔진을 직접 개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중국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에 탑재되는 J-15 전투기를 개발한 중국 선양비행기공사(SAC)는 작년 4월 29일 J-11D의 첫 비행을 실시했다. J-11D에 장착된 WS-10 터보팬 엔진은 SAC의 모기업인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의 또 다른 계열사 중국항공엔진그룹(AECC)이 개발하고 있다. 러시아 Su-30기는 미국 F-15E 전폭기에 필적하는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⑧

⑨



24

함께 생각해요
나와 상대를 높이는
황금열쇠는 존중이다
RESPECT



26

KAI 톡톡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28

글로벌 스토리
엄격한 윤리, 최고 복지로
인도 국민에게 존경받는
자동차기업 타타그룹



30

KAI 캠페인
배려, 칭찬
존중문화 만들기

Section 2 하나 된 KAI

일할 때 나는 회사,

신나는 일터를 꿈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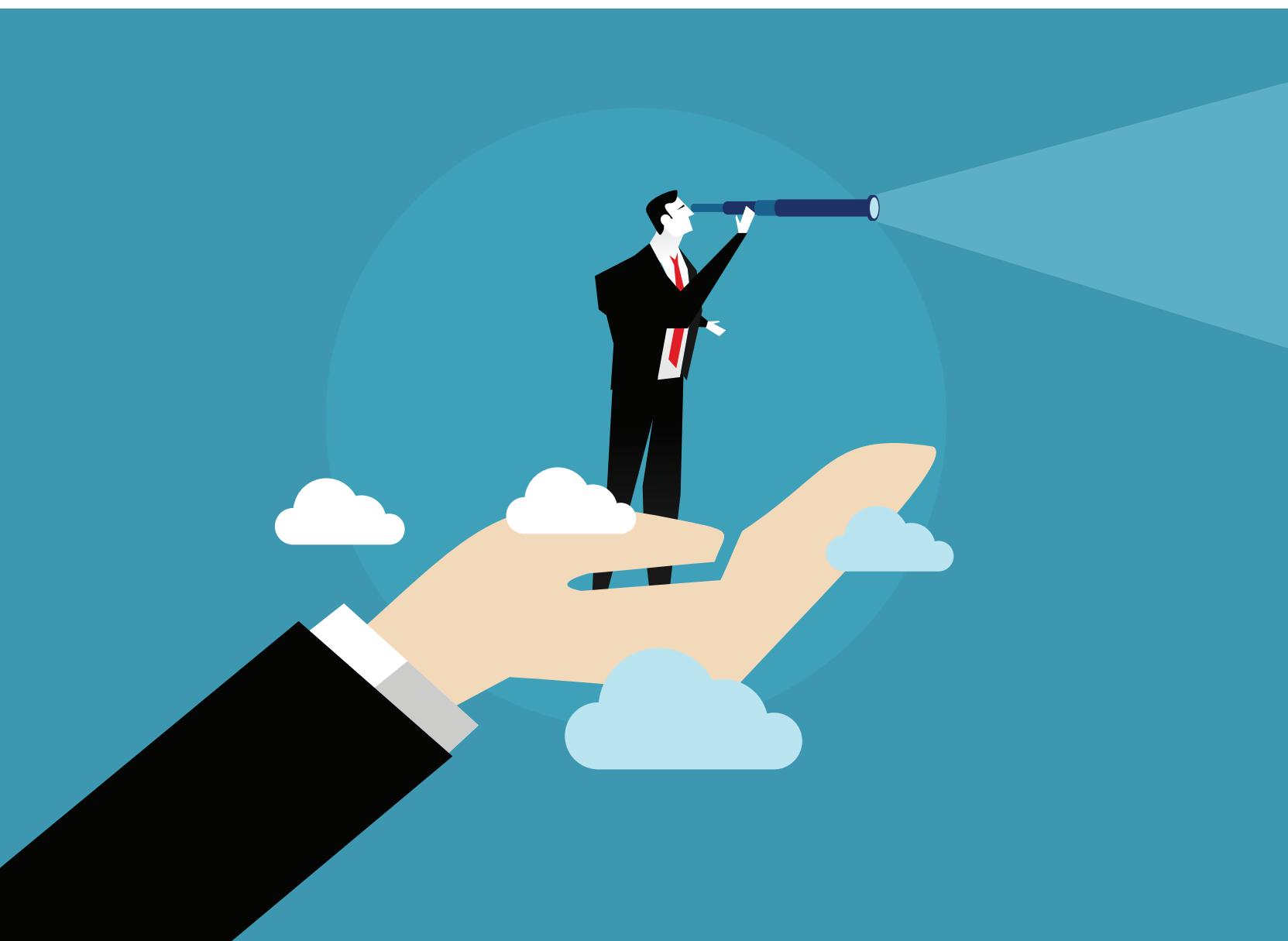
GWP(Great Work Place) 기업문화로

KAI는 하나가 됩니다.

KAI는 2016년 고용노동부 주관의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런 놀라운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건 아름다운 조직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들 스스로 솔선수범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가능했다. 솔선수범과 신뢰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가능하게 한다. 직장 내 존경하는 문화, 존경받는 기업문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글 전미옥 마이스토리 대표, 중부대학교 겸임교수

나와 상대를 높이는 황금열쇠는 존중이다 **RESPECT**



내 역할 제대로 할 때 신뢰는 쌓인다

아무리 오랫동안 친했던 사람끼리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자고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가치관이 부딪히고 일하는 스타일에서 어긋나기 마련이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로 잠시의 평화나 매끄러운 비즈니스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오래가지 못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부딪치거나 갈등할 때 언제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마음을 내줄 각오가 있어야 관계가 원만해진다. 그리고 그 이전에 자신이 속한 팀에서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즈 연주자들을 보자. 두 대의 피아노 앞에 앉아 각기 다른 연주자가 연주하는데,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연주는 한참을 듣다 보면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들린다. 재즈는 이렇게 연주자 스스로 '알아서' 연주한다. '알아서'한다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가진다. 재즈 연주자들은 시종일관 긴밀한 눈빛으로 소통하고 호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멜로디나 템포로 연주해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반응해 그에 맞는 연주를 맞추어 나간다. 이런 훌륭한 재즈 연주는 상대 연주자에 대한 무한신뢰가 있어야 한다. 자신이 혹시 실수하더라도 다른 연주자가 도와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바탕이 될 때 맘껏 자기 기량을 펼치며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 '알아서' 한다 해도 연주를 망치지 않고 멋진 선율을 선보일 수 있다.

신뢰는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군더더기 없이 잘해나가는 데 있다. 내가 나를 높여야 남이 나를 높인다. 나를 높이는 건 그냥 말로서가 아니라 일로서 보여주어야 한다. 내 일만큼은 되도록 흄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도 꼭 그 사람과 한 조직 안에서 어떤 일을 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믿어주며 일할 때 그 믿음대로 간다. '믿는다' '믿음직해 보인다' '잘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혼자 아니니 마음이 든든하다' 같은 말을 서로 나눈다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그 믿음은 좋은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회사가 존중한 직원들이 회사를 높인다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평가받는 싱가포르항공의 기업문화를 잘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 체크인 카운터의 한 책임자는 퍼스트클래스 카운터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 고객이 "절대로 초과수화물요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고객이 말하기를 "늘 싱가포르항공을 이용하고 있는데 초과수화물요금 정도는 받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이 책임자는 어떻게든 그 고객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랑이는 계속될 뿐이었다. 결국 그 고객은 더 윗사람을 나오라고 했다. 부득이 지점장이 불려 나왔는데 이 지점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항공편의 탑승수속 책임자는 이 사람입니다. 그의 판단이 제 판단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초과수화물요금은 그가 설명한 대로 지불해 주십시오."

퍼스트클래스 고객이라 하더라도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객의 억지를 들어주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초과수화물요금에 대해 설명한 직원을 신뢰해준 것이다. 지점장의 행동은 책임자와 담당자까지 세 사람 사이의 신뢰를 견고하게 해주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직원들은 다음에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분명해진다. **현장 담당자의 판단을 회사가 지지해 준다는 신뢰 관계가 쌓이면서, 동시에 그 신뢰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이 담당자에겐 쌓여갈 것이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존경받는 상사의 요건으로 '인격'을 꼽았다. 상사가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면 통제와 지시 없이도 부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한다. 카리스마는 거칠없이 하는 것,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직원을 믿으며 소통하는 것이다. 잘된 일의 공은 남에게 먼저

돌리며 책임은 앞장서 맡으려는 태도이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태도와 아랫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상사 역시 그 위의 상사, 결국 회사가 임직원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 직원들은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어간다.

적당한 부족함에 따뜻한 활력을 갖자

어려운 시기가 될수록 우리는 약점보다 장점을 더 많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 약점이 없는 사람, 무엇이든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양가감정을 가진다. 친사를 보내고 부러워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고 질투한다. 일반조직에서도 지나치게 완벽한 리더나 동료를 싫어하고 시기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과 같이 어딘가 부족하고 또 어느 정도의 약점을 가진 동료나 리더에 대해 관대해지고 친근감을 느낀다. 감정이 입 상태가 되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비슷한 약점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을 나눔으로써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좁힌다고 한다. **'권위적이지 않고 인간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과 유대감을 심어주면서 협조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 그러나 무작정

약점을 내보이기보다 약점을 선택적으로 잘 조절하여 권위나 동료애에 손상을 줄 정도의 약점은 노출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칭찬하려는 사람이 나라면 상대의 장점과 강점에 초점을 맞춰 진심으로 칭찬하고 친사를 보내자. "어제 야근하느라고 수고 많았지?" "이 보고서는 정말 잘 썼는데!" "이제는 자네들이 다 사장이야. 정말 나보다 훨씬 잘한다고!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나?" 윗사람부터 이러한 칭찬과 감사를 하면 조직의 분위기는 훨씬 달라질 수 있다.

인간성에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라고 한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장점을 찾아 칭찬하고 감사하게 되면 상대는 마음을 열고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마음이 뜨거워진다.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이 사이에서 존재한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상대방도 달라진다. 내가 상대를 먼저 높여야 나도 높아진다.

KAI인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2017년 첫 호는 존경에 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존경하는 건 강요가 아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지요. 마음의 끌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끌림의 끝자락에 누가 있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기체생산팀2직 강상희 직장

과학자 장영실

포기할 줄 모르는 도전정신! 희생정신! 봉사정신!을 존경합니다.



인재개발팀 김민수 사원

정보시스템팀 김인수 차장

김인수 차장님은 업무 특성상 많은 사내 정보시스템 민원을 응대하지만, 지금 고하를 막론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분입니다. 민원을 충분히 들어주고 직접 해결하며,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반깁니다. 차장님의 업무 방식과 배움의 열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열정적인 김인수 차장님은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입니다.

자재관리팀1직 우상길 전문기술원

美 10군단 지휘관 에드워드 알몬드 장군 / 메리디스 빅토리호 레너드 라우 선장

두 인물은 영화 <국제시장>에서 흥남부두 철수 작전에 나온 인물입니다. 비록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의 업적을 존경합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그들은 수많은 피난민을 살렸고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일으킨 사람으로 기억할만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조립생산팀2직 이광영 기술원

이순신 장군

국가적 위기, 외세의 침략, 피 튀기는 전쟁 중에도 시를 쓴 강한 정신력을 본받고 싶습니다.

기체설계팀 이원호 수석연구원

수영선수 박태환

그는 누구도 이루지 못한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에도 극단적인 선택보다 자신과 싸워 다시금 전성기 실적을 옷도는 성적을 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성취감과 자랑스러움을 안겨주었고 우리의 가능성을 한껏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그 뒤에는 엄청난 노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존경받아 마땅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익LS개발팀 김세욱 책임연구원

돌아가신 부모님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시대에 성실하게 사셨던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헬기로터설계팀 임동균 책임연구원

아버지

직장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힘들었던 일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원가관리팀 조인태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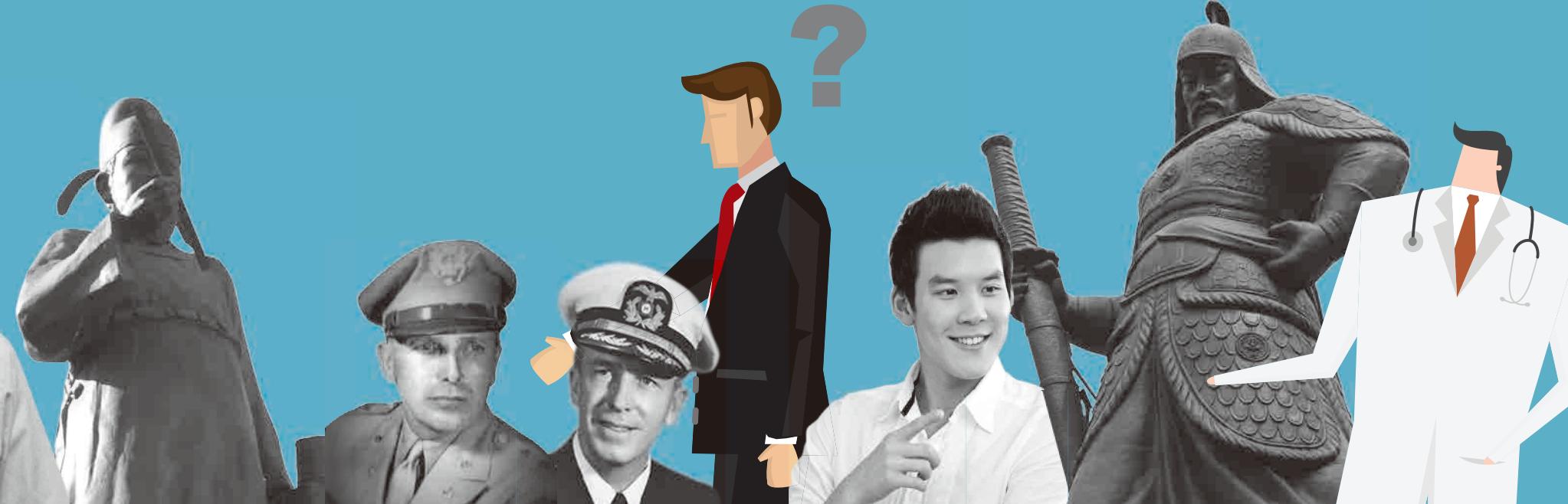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안과 김정훈 선생님

몇 년 전 딸이 눈 치료를 하기 위해 다닌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입니다. 권위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항상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서 많이 감동했습니다. 수술 후 마지막 진료 날을 잊지 못합니다. “이제 저를 볼 일이 없겠네요.” 선생님의 웃는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김정훈 선생님은 제가 존경하는 참된 의료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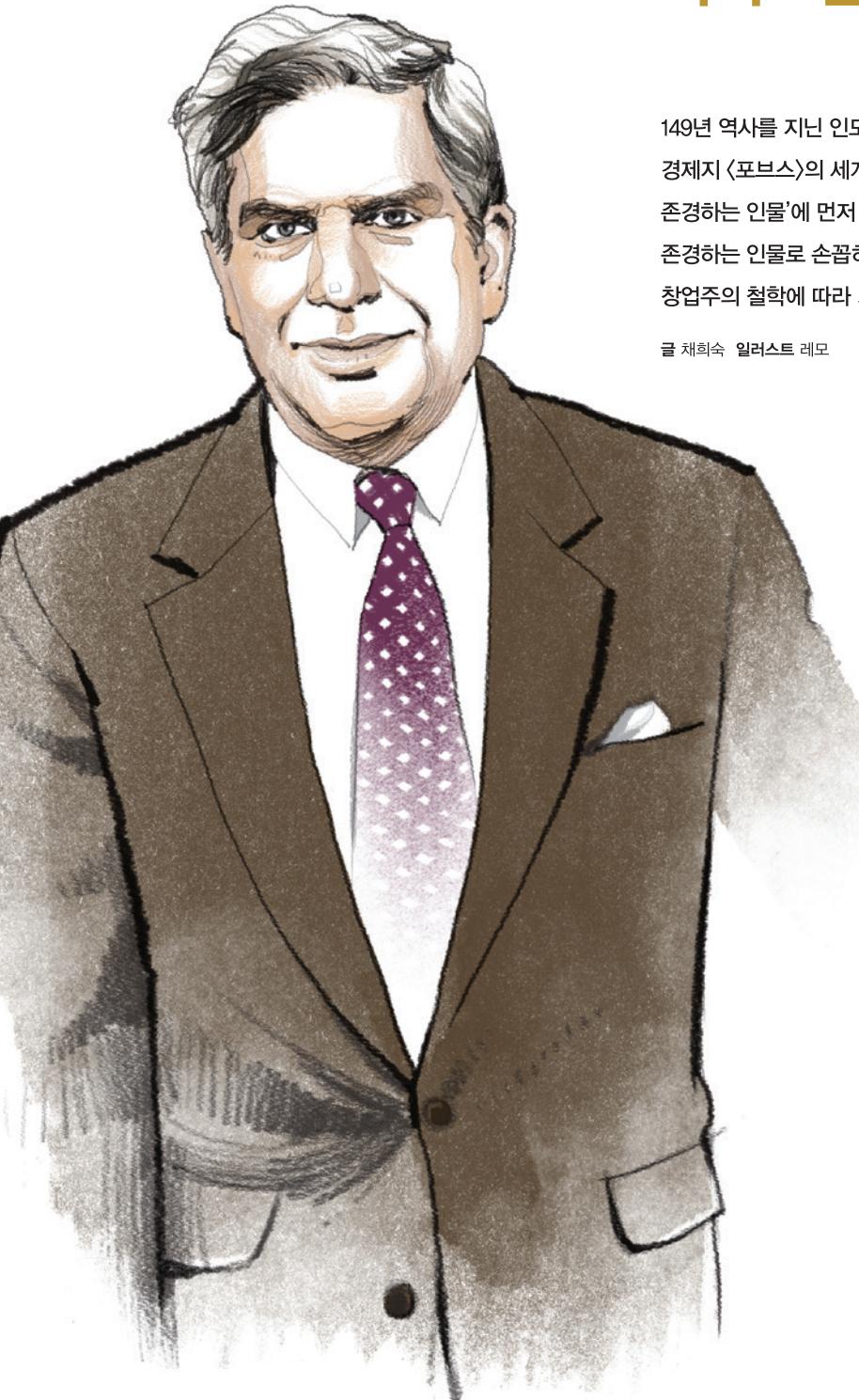
KAI 톡톡은 GWP 기업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직원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매달 웹진(kaiwebzine.com)을 통해 참여해 주세요.

2월호

- 주제 : 대화가 통하면 마음도 통한다 Communication
- 질문 : 나만의 필살 대화법은 무엇인가요?



엄격한 윤리, 최고 복지로 인도 국민에게 존경받는 자동차기업 타타그룹



149년 역사를 지닌 인도 최대 재벌기업 타타그룹의 라탄 타타 명예회장은 미국 경제지 <포브스>의 세계 부호 명단 대신 인도 경제지 <아코노믹 타임스>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먼저 이름을 올린다. 라탄 타타 회장이 인도 국민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손꼽히는 데는 ‘사회로부터 받은 것은 사회로 환원한다’는 창업주의 철학에 따라 기업을 경영한 덕분이었다.

글 채희숙 일러스트 레모

지주회사의 지분 2/3를 자선재단이 보유해

타타그룹은 149년 역사를 지닌 인도 최대의 재벌기업이다. 1868년 잠셋지 타타가 봄베이(현재의 뭄바이)에 차린 무역회사를 시작으로 1901년 인도 최초의 대규모 제철소, 1932년 인도 최초의 항공사를 세우며 1950년대 말 인도 최대의 기업집단이 되었다. 이후 철강사 코러스(2006년), 자동차회사 재규어·랜드로버(2008년)를 인수해 2011년에 1,000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달성했다. 2016년 3월 기준 자동차, 철강, 호텔, 음료 사업 등 총 29개 계열사에 66만여 명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1,160억 달러(약 133조 2,840억 원)다.

그런데 창업자 잠셋지 타타의 뒤를 이어 1991년 54세의 나이로 4대 회장직에 올라 2012년에 75세의 나이로 명예회장으로 물려난 라탄 타타의 재산은 수백억 원이었다. 타타 가문이 소유한 지분은 지주회사 타타선즈의 1%인 3억 3,0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재벌들의 천국인 인도에서 대부분의 재벌과 달리 오너의 재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대답은 100년 넘게 이어져 온 타타의 기업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타타그룹은 ‘사회로부터 받은 것은 사회로 환원한다’는

창업주의 철학에 따라 막대한 자산을 사회에 돌려주고 있다. 타타선즈 지분의 3분의 2를 타타 가문의 자손들이 설립한 자선재단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룹이 수익을 올리면 그중 66%는 사회로 환원되는 구조다. 이를 토대로 철강과 수력발전 등 국가 기간산업 육성은 물론 복리후생, 빈민구제, 협력업체와의 상생, 인재양성 등 타타 계열사 순이익의 4% 정도를 사회발전 부문에 지원한다.

이런 역사를 걸어오며 타타그룹은 인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으면서 인도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이 되었다. 창업주의 정신을 계승한 라탄 타타 명예회장은 혁신적인 경영으로 타타그룹의 최전성기를 이끌며 사회환원이라는 핵심가치를 증명했다. 그는 <포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부호의 명단 대신 <아코노믹 타임스>에서 선정하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먼저 이름을 올린다.

손실 감수하며 금융자회사 회계부정 고발

2002년, 타타그룹의 금융자회사인 타타파이낸스에서 인도를 뒤흔든 회계부정 사건이 터졌다. 타타선즈가 내부감사를 진행해 내부자거래 및 분식회계 등 비정상적인 부정행위를 찾아냈다. 그룹은 타타파이낸스를 사정 당국에 고발했다. 타타파이낸스는 파산하고 사장은 구속되었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그룹 자금 70억 루피(약 1,750억 원)가 투입되었다. 고발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을까? 라tan 회장은 훗날 한 인터뷰에서 “부정행위를 조용히 덮고 넘어갔다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겠지만, 회사가 둑사적으로 부정을 용인하는 문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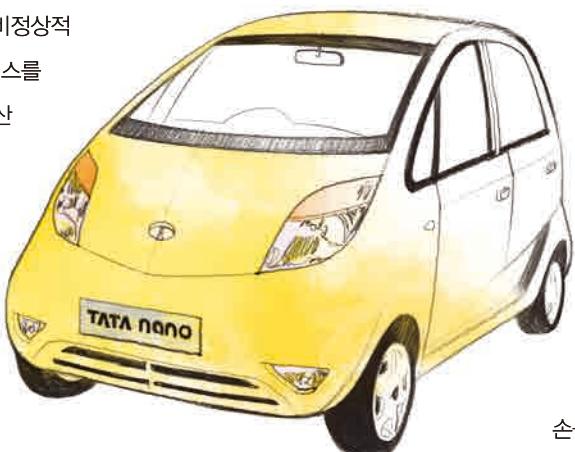
2008년 11월 26일에는 인도 뭄바이에 있는 타지마할 호텔에서 최악의 테러가 발생했다. 무장한 괴한들이 호텔을 점거한 상태에서 1,500여 명의 고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다가 12명의 직원이 희생되었다. 희생된 직원들에 대한 타타그룹의 보상은 파격적이었다. 사망부터 은퇴 시점까지의 임금 전액 지급, 해외유학을 포함한 자녀 및 부양가족 학비 전액 지원, 모든 부채 탕감, 유가족에게 360만 루피(약 9,000만 원)~850만 루피(약 2억 1,250만 원)의 위로금 지급 등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 남짓한 나라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조치였다.

그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라tan 타타 회장이 테러로 죽거나 다친 80여 명의 가족 집을 일일이 방문해 진심으로 위로했다는 점이다. 임원이 라tan 회장에게 심리상담센터 설치 등 향후 대책을 보고했을 때 그의 대답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였다.

한 대의 오토바이에 4인 가족이 매달려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은 인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위험천만한 그 모습을 본 라tan 타타는 인도 국민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5년 만에 약속을 지켰다. 2008년 ‘델리 오토 엑스포’에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 ‘나노’를 소개하면서 그는 말했다. “A promise is a promise.(약속은 약속입니다.)” 나노는 2009년 10만 루피(230만 원 정도)의 세계 최저가 자동차로 시장에 출시되었다.

정치자금 금지. 힘 있는 세력과 유착하지 않아

인도의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위권 밖이다. 뒷돈거래도 많고 전체적인 나라 분위기도 그렇다. 그러나 타타그룹은 정치자금을 주지 않고, 힘 있는 세력과 유착하지도 않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인도의 공직자들도 타타에게는 뒷돈을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타타그룹의 24개 윤리강령 중 첫 번째 항목은 ‘타타그룹의 모든 활동은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이다. 뇌물 제공 습득금지, 정치참여금지, 친척이 있는 회사가 타타 계열사들과 거래하게 되면 먼저 신고하고 회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등 직원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술과 담배같이 사회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는다.

엄격한 윤리강령 대신 직원 복지는 최고 수준이다. 직원이 순직했을 경우 유가족의 100%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순직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고용을 장려하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8시간 노동(1912년), 유급휴가(1920년), 임신휴가(1928년), 성과급(1934년), 퇴직금(1937년) 제도를 세계 어떤 나라보다 먼저 실시한 기업도 타타그룹이다. 하지만 2016년 말 존경받던 타타그룹이 지배구조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혼돈에 빠졌다. 독신이어서 후계가 없는 라tan 타타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물려나면서 그룹 최초로 가족 아닌 전문경영인으로 선출된 사이러스 미스트리 회장을 지주회사 이사회에서 해임하자 그가 회사 내부 이슈를 폭로하며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인도 재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인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라tan 타타 명예회장이 불명예스러운 일에 훈슬린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존경의 대상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존경하는 기업, 기업인을 잃고 싶지 않은 인도 국민의 마음이 헤아려진다.



하루에 1번
동료 칭찬하기



상대방 보며
웃어주기



동료를 부를 때는
올바른 호칭으로
(홍길동 사원)



전화는 친절하게



상대방 말을
경청하기



인사는 내가 먼저



32

KAI 나눔봉사단
연말 맞아 이웃에 전하는 온정
김장에 팔 걷어붙인 나눔봉사단



34

KAI 패밀리
눈 내리는 산사에서
세 부자의 마음 여행



38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니 그것참, 좋다 KAI~



40

나의 여행 이야기
떠나요, 모든 걸
훌훌 버리고



44

세대공감 KAI
설레던 그 시절, 설날을
추억하마!



48

이야기 한마당
함께여서 행복하지
아니한가!~

Section 3 소통하는 KAI

동료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더 풍요로운 KAI가 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연말 맞아 이웃에 전하는 온정 김장에 팔 걷어붙인 나눔봉사단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오르는 김치. 춥고 긴
겨울이 오기 전 집집이 연례행사처럼 김장을 한다.
하지만 이 일이 부담스러운 이웃도 있다. 이런
이들을 위해 KAI 나눔봉사단이 나섰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웃에게 전할 김치를 담근
그날의 행적을 따라가 보자.

정리 이효정



KAI 나눔봉사단이
직접 2,800포기의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어려운 이웃돕기 김치 담가

지난 12월 3일, 나눔봉사단은 우리 회사 웰빙홀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봉사' 행사를 열었다. 나눔봉사단 임직원과 그 가족 220여 명이 참석해 겨울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2,800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이 중 300포기는 우리 회사 식당을 운영하는 삼성웰스토리가 후원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김장 준비는 12월 2일부터 시작됐다. 나눔봉사단은 12개 조로 나누어 작업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세팅하고 천을 드는 등 다음 날 진행하는 본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3일은 이른 아침부터 나눔봉사단 약 35명이 배추 간수를 빼고 김장 용품을 준비했다. 오전 10시부터 220여 명의 봉사단이 배춧속을 버무리기 시작했다. 만들어진 김치를 상자에 담고 라벨을 부착하기까지 나눔봉사단은 종일 부지런히 움직였다. 짧은 휴식 시간에는 부부 크로스오버 팝페라 듀엣인 '라루체'의 공연이 열려 봉사단의 사기를 북돋웠다. 정오가 되어서야 마침내 김치 담그기가 끝났다. 점심 이후, 나눔봉사단은 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 380여 가구에 전달할 김치 상자를 트럭에 실었다. 이 김치는 오후 3시까지 곳곳에 배달됐다. 배달된 복지시설은 사천시와 진주시에 있는 두레공부방, 하늘바라기, 까치동지, 사천장애인부모회, 행복한 집, 건양요양원, 다문화통합지원센터, 창대아동센터, 삼소원, 합심원 등 24곳이다. 김치 10박스를 지원받은 삼소원의 채주연 사무국장은 "그동안 KAI에서 유기농 배추를 제공할 때도 감사했는데, 직접 만든 김치를 주셔서 감사의 마음이 더욱 큽니다. 정성도 있고 맛도 매우 좋아 어르신들에게도 인기가 좋았습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도움은 사랑이 되어 다시 돌아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봉사'에 참가한 봉사단의 참여 동기는 다양했지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 같았다.

향전SW팀 윤지애 수석연구원은 "딸에게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알려주고자 참여했어요. 나눔봉사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웃을 도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뿌듯한 감정을 잊지 않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지역 내 봉사활동에도 신청했어요"라며 행사 참여 소감을 밝혔다.

이전과 다른 송년회를 보내고 싶어 조원들과 함께 참여한 기체생산1팀3직 정대봉 조장은 뜻깊은 송년회를 보내 보람차다고 전했다. "선후배와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행사가 끝이 난 후에는 불링 게임도 즐기고, 저녁 시간에는 조원들과 업무와는 별개의 이야



기회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도 좋았습니다."

자자관리팀1직 정용진 전문기술원은 어려운 이웃을 돋는 일에 힘을 보태고자 아이들과 함께 참여했다. "김장을 해보지 않아 두려웠지만 어려운 가정과 소외된 이웃들이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아이들과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즐거웠습니다. 사우들이 힘을 합쳐 김치를 담그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2016년 나눔봉사단 분과위원으로 활동한 운영기획팀 황승진 선임연구원의 강회는 남달랐다. 지난 빵나눔봉사, 멘토링 재가봉사, 국토청결봉사, 연탄배달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앞장선 황승진 선임연구원은 한해를 나눔봉사로 마무리하고 싶어 참여했던다. "임직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참여해, 나눔봉사단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해 의미가 큰 행사입니다. 사전 준비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힘든 내색하지 않고 즐겁게 작업을 한 봉사단장, 위원장, 단원들을 바라보니 저절로 힘이 솟아났습니다. 김장 후 김치를 상자에 담아 차에 실어 보낼 때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황승진 선임연구원은 자신이 멘토링 재가봉사를 담당한 박정순 할머니 댁에 별도로 김치를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의 벽찬기분을 떨칠 수가 없어 내년에도 가족들과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봉사'는 2016년 10월부터 진행한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릴레이'의 일환이다. 사랑의 난방KIT, 사랑의 연탄나눔에 이어 11월 빵나눔에 이은 4번째 사랑의 나눔 활동이다. 나눔봉사단은 사회 밑바닥에 불을 밝히는 따뜻한 봉사를 통해 KAI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

최종조립생산팀3직 한동훈 조장과
두 아들의 해인사 템플스테이

눈 내리는 산사에서 세 부자의 마음 여행

2016년 달력의 마지막 장, 어느덧 시간은
흘러 다시 한 해의 끝자락에 섰다. 복잡했던
마음을 비워내고 행복을 채우기 위해
최종조립생산팀3직 한동훈 조장이 두 아들과
함께 해인사를 찾았다. 조용한 사찰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체험하며 마음의 휴식과
전통문화를 경험한 특별한 시간. 기와에
소복이 쌓인 눈처럼 세 부자에게 또 하나의
추억이 쌓여간다.

글 박영화 사진 정우철

Temple Stay

역사와 전통, 대장경이 있는 해인사

1,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천년고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장경판전'과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품은 법보종찰인 해인사. 가을빛이 완연한 산사의 모습이 제일이라 말하지만, 흰 눈이 내려앉은 해인사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다. 오후 2시 30분, 해인사의 풍경을 감상하던 중 한동훈 조장과 두 아들 정민이와 재원이가 해인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세 부자는 매서운 겨울바람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한 미소를 띠며 취재팀에게 인사를 건네왔다. "조용한 사찰에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두 아들과 함께 새해 소원을 빌고 가고 싶습니다." 한동훈 조장은 올 초에 조장으로 승진하면서 커진 책임감과 큰아들 정민이의 종학교 진학 문제, 한 달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복잡했던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싶었다고 한다. 수련복으로 갈아입은 세 부자는 해인사를 둘러보기 전 사찰에서의 기본예절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경내를 다닐 때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지면 안 되고, 오른손으로 원손을 감싸 손을 모으고 조심스레 걸어야 하는 것. 또 스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할 때, 일주문에서 법당을 오고 갈 때는 마음을 모은다는 의미로 합장해야 한다. 사찰 예절을 골잘 따라 하는 정민이와 재원이의 모습이 대견하다고 하니 재원이가 "템플스테이는 안 해봤지만, 아빠하고 해인사에 웃었어요.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이 있는데요. 친구에게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봤다고 장난도

쳤었어요"라며 자랑하듯 추억을 이야기했다. 재원이는 자신의 추억담을 증명하고 싶은지 아빠의 손을 잡고는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장경판전'으로 이끌었다. 부처의 말씀을 새긴 경판인 팔만대장경은 8만 1,258장 경판으로 이뤄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다. 이를 보관한 장경판전은 국보 52호로 목판 보관용 건축물이다. 600년이 훌씬 넘는 세월 동안 처음의 상태로 경판을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의 과학성과 건축술이 신비롭게 느껴졌다.

관음전에서는 선경스님의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림 전시회는 오랜 시간 쌓은 스님의 그림 실력을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것으로, 스님의 방인 '방사'가 일년에 단 한 번 공개되는 날이기도 하다. 예상하지 못한 그림 전시회에 조금은 들뜬 모습의 세 부자.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게임캐릭터디자이너를 꿈꾸는 정민이는 스님에게 그림의 의미를 물으며 제법 진지하게 작품을 감상했다.



마음을 다지며 108개 염주알 뛰기

그림 감상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재원이가 관음전 기와에 달린 고드름을 발견하고는 따고 싶다며 어리광을 피웠지만 아빠에게 사찰 예절에 대해 주의를 듣고는 이내 차분해졌다. 다정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동훈 조장, 아이들에게 그는 어떤 아빠일까. “아빠는 친구 같아요. 늦게 들어오시는 날도 많고 바쁘시지만, 저희랑 많이 놀아주세요. 가족 여행도 자주 가요. 가족 모두 수영을 좋아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갔었죠.” 자신과 장난칠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의젓하게 질문에 답하는 형의

모습에 재원이도 아빠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요리를 잘해요. 특히 떡볶이가 맛있어요. 떡볶이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빠 만의 특유의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서 두 아들의 칭찬을 듣던 한동훈 조장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오후 3시 20분, 찬 바람을 잠시 피하고자 만월당에서 108 염주알 뛰기 체험을 하기로 했다. 염주의 구슬은 보통 108주(珠)를 사용하는데, 이는 백팔번뇌(百八煩惱), 즉 염주를 돌리며 108가지 번뇌를 소멸시킨다는 뜻이다. “자꾸 말을 하면 몇 개를 뛰었는지 잊게 되니깐 지금은 묵언해야

몸과 마음이 경건해지다

오후 4시 30분. 세 부자는 ‘해인도’와 ‘정중삼총석탑’을 돌며 소원을 빌기로 했다. 해인도는 의상대사가 당나라 유학 시절 화엄사상을 요약한 210



자 7언 30구의 교리를 담은 글귀를 써 놓은 것으로, 미로를 따라 걷다 보면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중삼총석탑은 불상을 모신 탑으로, 탑 주위를 돌면서 예배의식을 행하게 된다.

(재원)“제가 경상남도 수영 대표선수예요. 더 많은 메달을 따고 싶어요. 소년체전에서도 기록 경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민)“모두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조장)“제 소원은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는데 어렵지만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2017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해외에 납품해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더 많이 웃게 되고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녁 5시 40분. 북적한 복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저녁예불을 알리는 법고 소리다. 웅장하면서도 울림이 큰 법고 소리는 사찰을 한 바퀴 돌

아, 온 산을 휘감고 해인사로 다시 내려왔다. 세 부자의 마음에도 깨달음의 울림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경내에 울린 법고 소리가 끝나자마자 저녁예불이 시작됐다. 부처님을 모신 대적광전에서의 경건한 예불시간을 끝으로 첫날의 템플스테이 일정이 끝이 났다.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며, 느꼈던 1박 2일간의 템플스테이. 훗날 해인사에서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세 부자가 함께했던 이날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길 바라본다.

해인사 템플스테이
경남 합천의 가야산 자락에 자리 잡은 법보종찰(法寶宗刹) 해인사(海印寺)는 한국 화엄종의 근본 도량이자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총화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사찰이다. 국보 32호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해인사 템플스테이는 평일에는 휴식형, 주말에는 체험형으로 운영되며 공양, 법고, 예불, 108개 염주알 뛰기, 걸기 명상, 경내 투어, 스님과의 차담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055-934-3110

KAI 소리개 등산동호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니 그것참, 좋다 KAI~

살을 에는 추위 탓에 선불리 야외로 나가기 쉽지 않은 계절, 겨울이다. 너도나도 꽁꽁 싸매기 바쁜 와중에 산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다. KAI의 소리개 등산동호회 사람들. 업무 이야기를 떠나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니 KAI 동호회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겨울바람과 추위에도 끄떡없는 산악인들이 가득한 소리개 등산동호회를 만났다.

글 최선주 사진 정우철

KAI 중에 최고

KAI의 소리개 등산동호회는 1993년도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동호회다. “소리개가 창단되고 난 초창기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산이 좋아 소리개의 일원으로 들어왔는데 좋아하는 산도 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네요.” 소리개 내에서 가장 대선배인 시설팀 성환동 직장이 소리개 등산동호회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소리개는 오랜 역사에 걸맞게 KAI의 동호회 중에서 최대 인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KAI 전 직원이 약 3,600명 정도 되는데 그중 소리개 인원이 310명 정도 돼요.” 성환동 직장의 이야기를 듣던 소리개 회장 헬기추진계통팀 문형래 책임연구원은 “동호회는 업무를 떠나 회사 동료와 사적으로 교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소리개 역시 ‘산’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나 서로 교감하며 친분을 유지하는 것이죠”라며 소리개 등산동호회의 매력에 대해 어필했다.



오래된 역사만큼

소리개는 그 역사와 규모만큼이나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동호회다. “저희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모여 등산을 합니다. 그때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모여서 산을 탔죠. 오늘은 날씨가 추운 탓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날씨가 좋으면 참식률이 높아요.” 특히 정기모임에 자주 참석하는 회원 중 일부는 산을 워낙 좋아해서 소리개뿐만 아니라 지역 내 등산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평소 출근 전 산을 타는 회원들도 많다고. 산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지식 또한 전문 산악인 못지않았다. 소리개 회원들의 등산 때도 이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저희가 등산동호회인 만큼 안전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소리개 임원들이 선두, 중간, 후미에 투입되어 무전기를 들고 거리와 회원들의 컨디션을 조절해 가며 산행을 해요. 인원이 많고, 초보 회원이나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회원들이 있으면 뒤처지기 마련이거든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게 내버려 두면 함께 산을 타는 의미가 없잖아요”라며 치공구기술팀 최승민 전문기술원이 설명했다.

“회사 내에서 시행하는 전사산행을 할 때는 3천 명 이상 이동을 해요.



인원이 많은 만큼 안전요원도 많이 투입되죠. 소리개 회원 30명 정도가 안전요원으로 투입되어 직원의 안전한 산행을 돕고 있어요.” 회원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함께 좋아하는 산을 타며 교감하는 소리개. KAI의 최고 동호회라 불릴 만하다.

소리개, 그들과 함께라면

소리개는 함께 모여 산을 타는 것 이외에 나눔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치공구기술팀 최승민 전문기술원은 “작년까지는 저희 동호회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어요. 회원들이 모여서 사천 삼천포 지역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연탄배달 봉사를 했죠. 회원들이 기부한 돈을 십시일반 모아 연탄과 식품들을 구매해 전달해 드렸어요”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듯이 덤덤하게 말했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기부금을 모으고 봉사활동까지. 소리개처럼 멋진 동호회가 또 있을까. 올해에는 KAI 나눔봉사단과 함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시행했다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함께할수록 더욱 빛을 발휘하는 소리개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 정상을 바라보며 울퉁불퉁 험한 산길을 함께 오르는 소리개 등산동호회 사람들. 그들이 펼쳐갈 2017년도 웬지 모르게 든든해진다.

소리개 등산동호회

설립연도 : 1993년
인원 : 약 310명
모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활동 내용 : 전국 산행, 연탄배달 등 봉사활동



고정익|LS개발팀 김세욱 책임연구원이
추천하는 제주도 여행기

떠나요,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늘 무언가는 생겼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생겨난다. 추억 속 여행도 그러하다. 4년 전 떠난 제주도 여행을 돌이켜보면 많은 것이 변했다. 2012년 그해에 제주도와 부산을 왕복하던 배편이 사라졌고 제주도와 삼천포 항로에 배가 증설됐다. 2017년 지금, 제주도와 부산을 오가는 배편이 다시 생겨났고 이제 삼천포와 제주도를 오가던 배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추억 속 어느 곳은 사라져 안타깝고, 그대로라 반갑다. 지난 추억 속 제주도 여행을 생각하며 다시금 미소 짓는다.

글 고정익|LS개발팀 김세욱 책임연구원 사진제공 그리스신화박물관, 제주관광공사



정선향공관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녹신로 554
- 064-784-5322
- 09:00~17:00
- 휴무일 명절 당일, 기상특보 발효 시 무료

여행의 시작은 설렘으로

2012년 4월 30일. 아내와 아영, 인영 두 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다. 회사 일과가 끝난 후 당시 신설된 삼천포와 제주를 오가는 두우해운의 제주월드호를 타기 위해 삼천포항으로 서둘러 움직였다. 배를 타고 떠난 여행은 처음이라 항구에 일찍 도착했다. 절차에 따라 선착장에서 차를 택송하고 매표한 후 인근 사량도 선착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제주월드호에 오를 수 있었다. 배정된 2등칸 4인실에 입실해 배를 구경하고 있으니 서서히 배가 움직였다. 큰 배를 타고 10시간 이상 여행을 해 본 적이 없어 살짝 긴장했지만, 딸들은 여행에 들뜬 모습이다. 멀미약을 먹은 덕인지 아이들은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품은 얼굴로 잠들었다.

추천합니다!



고정익|LS개발팀 김세욱 책임연구원



아내 지수



큰딸 아영



작은딸 인영

“정선향공관은 우리 사우들이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호텔 뷔페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그리스신화박물관에서 프로메테우스 그림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직접 바다사를 본 퍼시픽랜드, 또 가고 싶어요.”

”

”

”

”

그리스신화박물관

-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광산로 942
- 064-773-5800
- 09:00~18:00
- 휴무일 연중무휴
- 성인 9,000원, 소인 8,000원



아이들이 행복해 하니 나 역시 행복해졌다. 다음 날 6시경에 빨간 등대가 보여 제주도에 도착했다. 다. 본격적인 여행이 이제 시작됐다.

아이 감성에 맞춘 체험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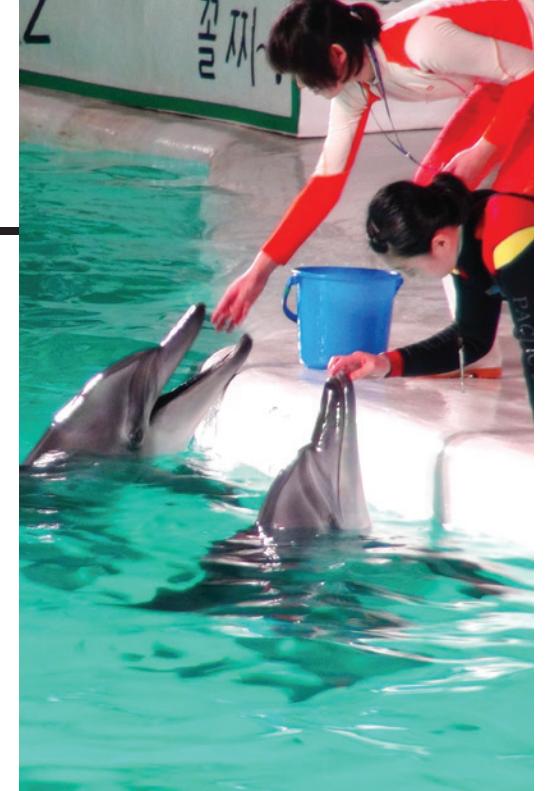
제주항에 내려 차를 인계받은 후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인근 해장국집에서 아침을 해결했다. 첫 일정으로 잡은 장소는 삼국지랜드. 변검 공연을 보려 했건만 아쉽게도 내부 사정으로 운영이 취소됐다. 혼란스런 시작이지만 다음 일정인 트릭 아트뮤지엄으로 향했다. 서귀포시에 있는 트릭아트뮤지엄은 체험형 그림 전시와 발명특허를 받은 독자적인 작품 150개가 전시되며 착시현상을 직접 체험해 보는 곳이다.

도착한 즉시 3D로 작업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 신나게 촬영을 한 후 다시 길을 떠났다. 길을 나서니 조금씩 지고 있는 유채꽃이 펼쳐진 가로수가 나왔다. 제주도는 유채꽃이 내륙보다 일찍 핀다. 보통 3월과 4월 초에 피어나 제주도를 노랗게 물들인다. 유채꽃 길을 따라가다 보니 정선향공관이 보였다. 대한항공에서 운영하는 정선향공관은 항공박물관이다. 1969년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대한항공 역사와 항공기 모형, 스튜어디스 변천사 등을 볼 수 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린 탓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하는 일과 연관된 덕인지 나에게는 의미 있는 곳이었다. 입장료는 무료다. 우리 회사 사우들에게 제주도에 가면 한 번쯤 들려보길 추천한다. 숙소 인근에 있는 신영영화 박물관을 구경한 후에야 오전 일정이 끝났다. 점심은 숙소에서 먹기로 했다. 바다를 보고 싶어 방을 변경했다. 방에서 보이는 제주 바다는 지금 돌아봐도 그림 같았다. 오후 일정은 딸 아영이가 제주도 여행 중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그리스신화박물관이다.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그리스신화박물관은 그리스신화 속 등장하는 여러 신과 유령의 유명 박물관에 전시된 명화와 대리석 조각상을 재현해 아이들에게 반응이 좋았다. 특히 아영이는 별 받는 프로메테우스 그림을 인상 깊게 보았다.

먹는 게 메리트라네

여행 3일째 아침. 전날부터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비가 개기를 희망하며 다시 나갈 준비를 서둘렀다. 오전은 숙소의 아쿠아나에서 물놀이를 즐겼다. 여행 마지막 날까지 물놀이를 즐길 만큼 두 아이는 물놀이를 좋아했다. 이후 퍼시픽랜드로 떠났다. 야외 수족관과 거대한 공연장이 마련된 퍼시픽랜드에서는 일본원숭이 쇼, 바다사자 쇼, 돌고래 쇼가 매일 열렸다. 돌고래 쇼 이후 바다사자 쇼가 이어졌다. 인영이는 바다사자와 사진을 찍고 싶어 했지만, 아내가 무심결에 제지해 사진을 찍지 못했다. 내가 인상적이었던 건 공연보다 진행요원이었다. 바다사자 쇼, 돌고래 쇼까지 몸에 익은 듯 능숙하게 진행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독특한 화산지형인 주상절리대는 제주도의 대표



퍼시픽랜드

-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 064-738-2888
- 09:00~18:00
- 휴무일 연중무휴
- 성인 12,000원 소인 8,000원

명승지다. 이곳이 제주도에서 본 유일한 자연경관이었다. 비가 그치고 흐렸던 날씨가 맑아지면서 주상절리대는 관광객과 상인들로 활기를 띠었다. 입구의 노점상에는 금귤, 귤, 한라봉, 천지향 등 다양한 제주도 과일과 감귤 초콜릿이 판매되고 있었다. 주차장에서 제일 가까운 노점상의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귤 삽서” 걸쭉하게 제주도 방언으로 우릴 보며 말했지만, 아이들은 그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할머니가 다시 아이들에게 금귤을 건네며 맛보라고 하자, “그거 먹어봤어요. 지난번 학교 급식 때 나와서 먹고 토탈 뺐었어요”라고 아영이가 말했다. 그 순간 섭섭한 표정을 짓는 할머니를 보며 아이들이 벼룩없고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내 부모님들도 나를 보며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말이다.

갑자기 화창했던 날씨가 흐려지면서 벼락과 함께 소낙비가 내렸다.

주상절리대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자연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은 이 경관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할지 궁금했다. 아이들이 더 크면 한라산이나 성산 일출봉에 등반할 수 있을까? 둘레길을 걸으면서 제주도의 자연경관을 볼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기다려졌다.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중문 호텔에서의 저녁 뷔페다. 몇 년 만에 다시 방문한 호텔의 외관은 많이 변하지 않았다. 얼마 전 개장한 식당은 동아시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다. 뷔페식당에는 처음 접하는 고급 음식들이 펼쳐져 있었다. 불도장, 대게, 육류와 회, 각종 젤리, 스테이크, 해산물. 누군가 여행에서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 가족 여행의 큰 추억은 아마 이 뷔페임이 분명했다.

추억은 행복을 싣고

마지막 날의 일정은 간단했다. 숙소에서 조식을 먹고 제주도 종단 도로를 드라이브하며 오전을 보냈다. 먹는 일은 빼놓을 수 없다. 전복해물뚝배기, 전복돌솥밥, 전복죽으로 배를 든든히 채웠다. 제주도에 처음으로 밭을 내려놓은 부두로 다시 돌아왔다. 오후 5시 10분, 배가 출항을 알린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아내는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대로 안심시켜주지

대포 주상절리대

-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동 2767
- 064-738-1521
- 08:00~18:00
- 휴무일 연중무휴
- 성인 2,000원
소인 1,000원



못해 미안하다. 오후 9시가 되어서 고흥의 녹동항에 도착했다. 고흥, 벌교, 순천, 하동을 걸쳐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모든 여행이 끝났다. 2002년 가정을 이룬 후 나흘 동안 집을 비우고 여행한 경험이 없었다. 이런 일정으로 떠난 제주도 여행은 두 번째다. 부디 이 기억이 오래오래 남아 각자의 인생에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스며들길 기대한다.

설레던 그 시절 설날을 추억하며!

글 한울 일러스트 DK

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설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설날은 추석, 한식,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명절로 꼽힙니다. '설날'은 우리 고유의 단어입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와 처음은 낮설다고 해서 '설다'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신일(慎日) 즉 '삼가는 날'이라는 의미가 가장 일반적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니만큼 다른 날보다 경가망동을 삼가자는 뜻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어렸을 적에는 설날이란 말만 들어도 기분이 한껏 설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몇 날 며칠을 손가락으로 꼽아가면서 설날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설날에 대한 추억을 꼽아보면 지금도 살며시 미소가 떠오르는 일이 한둘이 아니지요.

설이 되면 우선 설빔이라고 해서 새 옷이나 새하얀 운동화 등을 입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시장 안을 부모님 손 꼭 잡고 두리번거리던 기억, 옷걸이에 양증맞게 걸린 옷을 몸에 살며시 갖다 대보던 순간의 떨림을 어찌 잊을까요. 양말 하나도 구멍이 나면 꿰매 신던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새 옷, 새 신발이 얼마나 귀하고 귀했던지 징그름에 깊숙이 넣어놓은 것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면서 그저 흐뭇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설날은 그 어느 때보다 먹을거리가 풍성하게 많았기에 잔치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집도 설날만큼은 하얀 가래떡을 뽑고 노릇노릇 부침개를 부치는 등 명절 음식을 만들면서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설을 앞두고 동네 사람들 이 미리 전통주를 담그기도 하고, 마을에서는 돼지를 한 마리 잡아 함께 나누기도 하는 등 그야

말로 정이 넘쳤습니다.

설날 아침이면 조부모, 부모님께 세배하고 집집 이 찾아다니며 어른들께 세배했습니다.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기분 좋은 덕담을 하고 주머니에서 세뱃돈을 꺼내주기도 했지요. 이렇게 오전 행사가 끝나면 오후에는 팽이치기,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을 하면서 노느라고 온종일 바빴습니다. 따지고 보면 어린 시절 설날은 그야말로 '설렌 날'이었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문전성시를 이뤘던 동네 목욕탕은 또 어떤가요?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 가족들이 삼삼오오 목욕탕을 찾아 둑은 때를 벗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집집이 욕실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으니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가 지금보다 훨씬 경건하고 숙연했던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설날에 대한 풍속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향집을 찾았다가도 당일 치기로 귀가하는 가족이 많아졌고 역(逆)귀성도 늘었습니다. 명절에 굳이 고향을 찾지 않고 해외로 떠나는 명절 여행족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시대의 변화와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소중한 감성을 메마르게 하는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정, 이 옷, 가족이라는 단어보다 개인, 혼밥, 나홀로족 등이 유행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설날의 추억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고리타분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추억한 설날은 정말 그 옛날 추억 속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좀 불편하고 번잡했지만, 마음만큼은 지금 보다 훨씬 따뜻하고 넉넉했던 설날이, 설렘 가득 했던 그 설날이 애잔하게 그리워지는 것은 비단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옛말에 더 이상 명절이 기다려지지 않으면 어른이 된 것이라 말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은 설날이 두근두근하게 기다려지시나요?

올 설날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느꼈던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우리의 아이들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설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예쁜 한복을 입고 엄마 아빠와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면서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설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설날 음식을 먹고 설날에 할 수 있는 놀이를 즐기며 모두 신나게 한바

탕 웃을 수 있는 넉넉한 설날이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함께 배꼽 잡고 웃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통하는 방법도 더 잘 찾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사랑과 정성을 가득 담은 덕담 한마디로 가족, 친척이 따뜻한 정을 나누며 건강과 행복을 소원해보길 바랍니다. 고향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바쁘게 달려온 시간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과 마주하길 바라봅니다. 잊혀가는 전통문화 속 그냥 그런 설날 아닌 우리가 몸소 느끼고 경험했던 어린 시절의 설날, 그 소중하고 귀했던 추억 한 자락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올 설날이 그런 행복한 날이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KAI인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 속 설날은 어떤 모습인가요?



기체생산팀 고양현 팀장

26년 전인 1999년. 결혼 후 처음으로 처가에 세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예식장에서 처음 본 아내의 외할아버지댁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집에는 친사위 여섯 명과 손자사위 두 명, 증손자 한 명까지 4대가 한자리에 모였지요. 그들과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대가족이 모인 설날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되었네요.

30대

생산관리팀 김선옥 사원

평소 못 만났던 친척 어른들에게 절을 하고 세뱃돈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의 저처럼 세배하고 있네요. 저는 시어머니와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들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50대

생산지원팀 박선제 수석기술원

1969년 설날, 방앗간에서 떡가래를 뽑기 위해 줄을 길게 섰던 기억이 아련하게 납니다.

사업관리3팀 김영식 차장

기차와 버스를 타고 6시간 정도 걸려 고향으로 갔어요. 그 길이 힘들었지만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매우 흥분되었어요. 돌아오는 날, 왜 그리도 발이 안 떨어지는지… 그때가 그립습니다.

50대

성능개량생산팀1직 김일용 조장

아침 일찍 부모님께 세배하고 세뱃돈을 받은 후 이웃집과 친척집을 돌아다녔습니다. 빠르게 세배만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백 원에서 오천 원 사이의 세뱃돈을 받았었어요.

50대

KFX비행제어팀 임영우 연구원

저는 설날을 좋아합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그간 하지 못했던 담소를 나누며 다시 한번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새해의 출발을 알리며 좋은 일만 기득하길 기도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어렸을 땐 세뱃돈 받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베푸는 어른이 되었네요.

20대

GSE개발팀 심대근 책임연구원

30여 년 전의 겨울, 지금은 래프팅으로 유명한 경호강에 얼음이 얼었었죠. 추운 겨울 강가의 큰 돌 위를 망치로 내려쳐 돌 아래 숨어있던 물고기를 기절시켜 잡은 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쥐불놀이하다 설빔에 구멍을 내서 부모님에게 훈粲이 났었습니다. 부르튼 손으로 온 동네와 산을 누비던 그때의 설날을 다시 한번 겪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립습니다.

40대

기체생산2팀3직 양기열 기술원

저는 1남 2녀 중 막내입니다. 친누나들과 다섯 살, 여덟 살 터울입니다. 어릴 적에 설날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어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누나들보다 나이가 많아지고 싶어 떡국 열 그릇을 먹었지요. 다 먹지도 못하고 체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20대

전략구매팀 이승주부장

마을을 돌면서 어른들에게 인사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세뱃돈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50대

조립생산팀5직 김현태 전문기술원

설날 하면 세뱃돈이죠. 큰절 한번 하고 백 원씩 받았어요. 오백 원을 주는 분은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는 세뱃돈으로 초등학생에게도 만 원씩은 줘야 한다죠.

40대

LAH체계종합팀 장용진 책임연구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은아버지께서 항상 '종합선물과자세트'를 설날에 사 오셨어요. 형이랑 다뤄가며 각종 과자를 골라 먹는 재미가 쓸쓸했죠.

40대



세대공감 KAI는 추억을 함께 떠올려보는 자리입니다. 세대 간 차이는 있지만 추억이 아름다움은 하나같지 않을까요?

매달 웹진(kaiwebzine.com)을 통해 참여해 주세요. 참여자 중 지면에 글이 소개된 분들에게는 음료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2월호

- 주제 : 출업

- 질문 : KAI인의 추억 속 출업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치공구직 최승민 전문기술원

설날엔 항상 시골 큰집으로 갑습니다. 큰집 할머니는 늘 고쟁이 안에 꼬깃꼬깃 넣어둔 돈을 주시거나 쟁여두신 곶감을 내어 주셨지요. 사촌들과 논두렁에서 썰매를 타고, 형들과 활을 만들어 토키 같은 짐승을 잡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어스름 저녁이 되면 논 주변에 모닥불을 지펴 콩류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그때가 가끔 생각나곤 합니다.

50대

개발관리팀 하경태 수석연구원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엔 항상 시골 큰집으로 갑습니다. 큰집 할머니는 늘 고쟁이 안에 꼬깃꼬깃 넣어둔 돈을 주시거나 쟁여두신 곶감을 내어 주셨지요. 사촌들과 논두렁에서 썰매를 타고, 형들과 활을 만들어 토키 같은 짐승을 잡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어스름 저녁이 되면 논 주변에 모닥불을 지펴 콩류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그때가 가끔 생각나곤 합니다.

치공구직 최승민 전문기술원

설날엔 항상 시골 큰집으로 갑니다. 큰집 할머니는 늘 고쟁이 안에 꼬깃꼬깃 넣어둔 돈을 주시거나 쟁여두신 곶감을 내어 주셨지요. 사촌들과 논두렁에서 썰매를 타고, 형들과 활을 만들어 토키 같은 짐승을 잡아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어스름 저녁이 되면 논 주변에 모닥불을 지펴 콩류를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그때가 가끔 생각나곤 합니다.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이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이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이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이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이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이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이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이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이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설날 하면은 동네 목욕탕이 생각나네요. 명절이면 목욕탕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북적거렸는데 놀기 좋아하던 그때는 동네 친구들과 탕 속에서 물장난이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듣고 잠시 조용히 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장난쳤어요. 절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마, 지금은 그런 목욕탕은 없겠지요.

40대

2016년 4/4분기 조직 활성화 모범 사례

함께여서 행복하지 아니한가!

조직문화는 구성원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행동을 결정하는 밑바탕이다. 조직의 핵심역량이 되는 조직문화의 중요성은 높아져 간다. 특히 조직 활성화 활동은 팀원들의 관계를 돋독하게 해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6년 마지막 분기의 조직 활성화 모범 사례로 뽑힌 4개 팀은 KFX항전체계팀, 조립생산팀4직, 세부계통팀, 기체생산2팀2직이다.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그들의 활동을 들여다봤다.

정리 이효정

훈훈한 봉사 통해 친목 다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시간, 재능을 기부하면 다른 사람을 돋는 기쁨도 함께 커진다. 고정익개발본부 항공전자실 KFX항전체계팀이 뭉쳐 나눔을 실천하고 기쁨을 나눴다. 나눔 속에서 팀원들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일년에 두 번 팀원과 그들의 가족은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모인다. 이번 모임은 농촌 일손 돋기다. 지난 11월 5일 산청군의 감 과수원을 방문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방문한 이번 행사는 고정익개발본부 항공전자실 KFX항전체계팀뿐만 아니라 론히드마틴의 TA와 TA가족 5명도 함께 자리했다. 이 자리를 기회 삼아 한국에 파견된 그들과 더욱 두터운 친목을 다졌다. 과실 수확이 늦은 농촌의 일손을 도와 뿌듯함은 증가하고 팀원들, 가족들과 더욱 둔독해진 뜻깊은 행사였다.

김빈희 선임연구원은 “팀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감을 수확하고, 막걸리와 새참을 먹었습니다. 별을 보며 가마솥 뚜껑에 고기를 구워 먹은 경험은 힐링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론히드마틴의 TA와 TA가족이 함께 참여해 더욱 뜻깊고 감사한 자리였습니다”라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고정익개발본부
항공전자실
KFX항전체계팀



고정익개발본부
세부계통실
세부계통팀

함께 낸는 월척으로 단단해진 팀워크

일에 치이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다. 몸과 마음이 힘들어 서로에게 상처를 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 잠시 쉬어가기가 필요하다. 일상에서 떨어진 취미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동료와 함께 취미를 공유한다면 그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낚시를 함께 즐기며 관계의 끈을 두텁게 만든 팀이 고정익개발본부 세부계통실 세부계통팀이다.

10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세부계통팀은 남해 호도에서 밤낚시를 즐겼다. 낚시 동호회 활동을 하는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은 낚시 경험이 없었다. 낯선 경험이지만 낚시하기 좋은 철이라 전쟁이 많이 잡혀 팀원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천태욱 책임연구원은 “평소 즐기던 낚시를 팀원들과 함께했습니다. 낚시를 처음 하는 팀원이 많아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모두 즐거워해 뎅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랜 취미 생활인 낚시를 팀원들과 공유해 뿌듯했습니다”라고 밤낚시 체험 소감을 밝혔다. 조직문화에서 같은 경험을 즐기는 일은 소속감과 결속력을 높인다. 동료 중에는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급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과 함께 경험을 공유한다면 단단한 동료애가 생겨나 공동의 목표 의식 속에서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생산본부
조립생산실
조립생산팀4직

다양한 활동으로 조직의 단결력 키워

일과 중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동료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높은 동료애는 조직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동력이 된다. 팀원 간의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조직 활성화 모범 사례로 생산본부 조립생산실 조립생산팀4직이 선정됐다.

생산본부 조립생산실 조립생산팀4직의 2016년도 슬로건은 ‘최고를 지향하는 열정과 도전의 조립생산팀4직, 한방향 한마음 소통으로 비전 2020 달성’이다. 이 목표에 따라 볼링 대회, 풋살 경기, 소프트볼 경기, 스크린 골프, 직원과의 호프 데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반복되는 직장 생활을 떠나 동료들과 문화생활을 즐기며 소통의 장의 마련하고 동료애를 높였다.

조직 활성화 활동에 대해 전지수 기술원은 “교류가 힘든 선배들과 소통해 좋았습니다. 선후배 간의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생산 목표 달성과 2020년 매출 10조 달성을 위해 조립생산팀4직은 2017년도에도 다양한 참여 행사를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건강한 에너지를 얻는 산행

정서적 소통과 활기찬 조직문화를 위해 생산본부 기체생산1실 기체생산2팀2직이 11월 5일 마이산으로 산행을 떠났다. 이번 산행의 의미는 남다르다.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Auto Clave 조직이 3직에서 2직으로 1개조 편입해 이를 축하하는 자리인 동시에 핵심 장비의 이상 발생률을 최소화 해 생산 목표에 달성하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고단한 업무에서 잠시 떠나 자연을 벗 삼아 떠난 산행으로 지친 몸을 치유했다. 걸으면서 생기는 건강한 에너지는 만성 피로가 쌓인 몸을 정화한다. 팀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팀워크를 다졌다. 기체생산2팀2직은 산 정상에 올라 목청이 터질 듯 ‘파이팅’을 외치며 스트레스를 날렸다.

고태진 직장은 “산행하며 고민거리를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고 직원 간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끈끈한 정을 쌓고 직급 간의 소통을 하는 자리여서 더 뜻깊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단단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알아야 한다. 공통된 경험을 겪고 나면 서로를 파악하기 쉽다. 산행 역시 좋은 예이다. 힘들지만 함께 산을 오르고 내려가다 보면 그 속에서 작은 연결고리가 생겨난다. 이 시작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첫걸음이 되어 줄 것이다.

생산본부
기체생산1실
기체생산2팀2직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6 KAI를 빛낸 주요 뉴스'와 '숫자로 보는 2016 KAI' 부문이 인상 깊었습니다. 12월에도 풍성한 뉴스가 참 많았네요. 특히 '2016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도 임직원과 소통하며 더 발전하는 KAI 사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배정민 님(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T-50의 무사고, 5천 회 비행시험 등 KAI도 2016년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FA-50도 최종 호가 납품되었고, 새해에도 미 공군 훈련사업과 KF-X사업에 더욱 힘써주세요.

최도현 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AI로 이직한 후 회사의 중요성과 출근의 가치를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대한 적응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필요했습니다. 우연히 집으로 가져간 사보를 보고 아이들이 비행기를 오려 냉장고나 낙서장에 붙여가며 놀기 시작하면서 이곳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사보를 통해 가족의 화목이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전합니다. 또한 World Today의 '대영제국 부활의 갈림길에 선 영국'을 보면서 선진 항공국의 미래와 역사 를 파악해 좋았습니다.

김상우 책임(GSE개발팀)

초음속 항공기 개발 역사에서 드문 사례인 T-50 무사고 비행시험 5,000회 달성을 축하합니다. 나아가 KF-X 개발과 미 APT사업 수주를 전사원이 힘을 모아 성공하기 기원합니다. 새해에 회사의 경영목표와 계획들이 사보에 기재되어 사우들이 공유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종열 전문(최종조립생산팀)

2016 KAI를 빛낸 주요뉴스를 보니 1년이 지나감을 실감합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T-50 무사고 5,000회 달성. 우리 회사 전 임직원의 정성과 열의가 남긴 T-50 항공기가 그만큼 완벽하다는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보 내용이 아주 알차게 꾸며졌다고 생각합니다.

배수민 전문(부품검사팀)

<Fly Together>를 읽고 난 소감과 독자 퀴즈의 정답을 엽서 또는 이메일(hybae@koreaaero.com)로 보내주세요. 내용을 보내준 독자 중 5명을 추첨해 고급 손목시계를 드립니다.



본부별 사내 기자단

전략기획본부 신사업전략팀 박주호 사원 055-851-0852
재경본부 자금팀 최준형 사원 055-851-9711
국내사업본부 AH협력팀 정종원 과장 055-851-6175
해외사업본부 수출기획팀 이유리 과장 055-851-9583
구매본부 구매기획팀 김민준 사원 055-851-9097
개발사업관리본부 고정익개발사업관리팀 김미영 사원 055-851-1578
고정익개발본부 KT-1체계종합팀 노나영 선임 055-851-9956
회전익개발본부 LAH체계종합팀 노나영 선임 055-851-9140
대전연구센터 우주사업팀 박용현 사원 055-851-6737
생산본부 생산계획팀 장재완 부장 055-851-9353
CS본부 운영기획팀 안재운 선임 055-851-2867
품질총괄 품질기획팀 이창영 사원 055-851-9495

바로 잡습니다

지난달 <Global Story> 31페이지 삽화의 영어 철자가 잘못 표기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metter → matter

QUIZ



Q우리 회사는 1999년 10월 1일 출범한 이후 한국 항공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다음 해인 2000년 10월에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항공기를 출하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KAI 히스토리' 중에서)

웹진으로 만나는 *Fly Together*

KAI의 소식을 반응형 웹진에서 만나세요!

KAI 사보 <Fly Together>를 반응형 웹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Fly Together> 표지 또는 아래의 QR코드를 검색창에 갖다 대면 웹진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더 편리하게 바뀐 웹진 <Fly Together>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PC나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kaiwebzine.com 입력하면 바로 웹진 <Fly Together>를 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보 앱 를 설치하세요

- 안드로이드 편
 - ① 네이버 QR코드 스캔을 통해 웹진 <Fly Together> 홀 화면 열기
 - ② 웹진 <Fly Together> 홀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더보기' 클릭
 - ③ '더보기'에서 '홀 화면 추가'를 누르면 아이콘 생성 완료
- 아이폰 편
 - ① 네이버 QR코드 스캔을 통해 웹진 <Fly Together> 홀 화면 열기
 - ② 웹진 <Fly Together> 홀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더보기' 클릭
 - ③ '더보기'에서 'Safari로 열기'를 클릭
 - ④ Safari의 하단 '공유탭'을 클릭한 후 '홀 화면 추가' 클릭하면 아이콘 생성 완료

웹진 이벤트

위 방법에 따라 휴대폰에 사보 앱을 설치한 후, 휴대폰 화면을 캡처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명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 상당)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대상 전 직원
신청기간 1. 11(수)~1. 19(목)
신청방법 캡처한 이미지를 기업문화팀(배화윤 차장 T9485)에 전송
* 신청 결과는 개별 공지됩니다.